



---

# 특집

---

##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원민주화 쟁취 사례 연구

— 인천대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본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정

정태현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임미리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노동현장 조직화

— 초창기(1987년~1992년) 사례를 중심으로

김영수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원민주화 쟁취 사례 연구

인천대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본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정

정태현

고려대학교

### 〈논문요약〉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 가운데 학원민주화는 민주화의 내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개교 이듬해인 1980년에 인천대 ‘재단정상화투쟁-학원자주화운동’이 시작된 이래 국가권력-문교부는 언제나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재단을 국가에 헌납한 교주(校主)는 그 틈에 되돌아와 학원을 파행으로 몰고갔다. 그러나 1980년대 학원민주화 부문에서 유일무이한 성공사례인 선인학원의 시·공립화(市·公立化) 14년 대장정이 1994년 3월에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투쟁대상이 “무조건 재단”이었던 인천대 학생운동의 끈질긴 투쟁과 단일대오 구축, 역량의 대중화를 기반으로 교수·교사들과 시민의 힘이 한데 모아졌고 각 주체들의 역할 분배가 조화를 이뤘기 때문에 가능했다.

■ **주요어:** 재단정상화투쟁, 학원자주화투쟁,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시·공립화

## 1. 머리말

사립을 포함한 모든 학교의 출발점은 공공성에 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사립학교에도 기부한다. ‘소유권’ 또는 ‘경영권’ 여부를 떠나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키운다는 사회적 ‘명분’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의 적지 않은 사립대학 ‘교주(후손)’들은 학원을 사유재로만 인식한 채 학교 경영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민주화란 인류의 과제이다. 정치적 제도화 수준을 넘어 그 영역은 끝없이 확대되게 마련이다. 특히 사립학교의 운영 내용이나 수준 역시 그 사회의 민주화 수준에 비례한다. 그간 학생운동사 연구는 메이저 캠퍼스나 ‘논쟁’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았다. 이제 학생운동이나 민주화운동 연구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진전을 가로막는 고질적 세습영역인 학원 부문의 개혁을 두고 새로운 연구방법론이 요구되는 학원민주화 영역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980년대 들어 여러 대학의 학생운동은 부패재단 개혁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그 성과는 ‘민주시민대학의 성공모델’로 불리기도 했던 상지대를 포함해서 극히 제한적이다. 그런 점에서 부패재단을 시립으로 전환한 유일한 사례로 1980~1993년간 인천대생들의 재단정상화투쟁(‘재투’) 또는 학원자주화투쟁(‘학자’) 운동은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을

고찰할 때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14년 동안 선인학원 재투-학자의 핵이었던 인천대 학생운동은 중요성에 비해 주목도가 약했다.

인천대학교는 선인학원이 1979년에 신설한 인천공과대학으로 출범했다. 이후 교명이 인천대학(1980년), 인천대학교(1988년)로 바뀐 후 1994년 시립대학으로 전환되었다. 1958년 성광중·상업고등학교를 인수한 백인엽은 5·16 군사정권에 의해 구속되어<sup>1)</sup> 1962년 1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sup>2)</sup> 5월 3일,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가 이듬해 출감한<sup>3)</sup> 백인엽이 법인 명칭을 선인학원(1965년)으로 바꾼 이후 “거대 학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비리는 상식을 뛰어넘는다.<sup>4)</sup>

본고는 당시 인천대 학생운동권 핵심인물들의 구술을 중심으로 인천대 재투-학자 과정을 학생들의 생각과 입장에서 ‘재구성’하고자 한다. 필자가 인터뷰한 분들은 다음과 같다.<sup>5)</sup>

- 1) 「부정축재자 26명을 구속」, 『동아일보』 1961/05/29; 「25명은 이미 구속」, 『경향신문』 1961/05/29. 부정축재처리위원회가 9월 16일 발표한 부정축재액은 297,456,865환이었다 (「공무원 부정축재 중심」, 『경향신문』 1961/09/16; 「부정축재 34명에 처분액 통고」, 『동아일보』 1961/09/17).
- 2) 「백인엽에 무기징역」, 『동아일보』 1962/01/24. 추징금(72,471,723환)도 함께 선고되었다.
- 3) 「박의장이 최종확인한 혁재판결」, 『동아일보』 1962/05/03; 「이천삼백명 석방」, 『동아일보』 1963/05/15.
- 4) 장석우 편(1996);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는 이러한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다.
- 5) 인터뷰는 2012년 10월 29일(18:00~23:10), 2012년 11월 30일(18:00~다음날 01:30) ‘하림(인천시 도화동 소재)’에서 두 차례 이뤄졌다. 이 글에서 구술자는 ()안에 인명으로 표기했다. 안 교수님(1982년 부임)과 심상준 선생님 등 11분께 감사를 표한다. 두 번째 인터뷰는 11분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되어 서로 기억이 다르거나 부정확한 경우가 있을 때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름	학과/학번	당시 주요 직책	이름	학과/학번	당시 주요 직책
안경수	인천대 교수 (시립인천대 총장: 2008~2012년)		정수영	건축 86	1988년 씨글연합회장
심상준	독문 80	1985년 삼민투위원장	권기태	독문 87	1989년 독문과 학생회장 1990년 총학 기획부장
고도현	미술 84	1991년 예체대 학생회장	권정달	산공 89	1992년 동아리연합회장
정성준	전자 85	1992년 총학생회장 6기 인대협 의장	정재식	경영 89	1990년 이부대 학생회 총무부장 1993년 부총학생회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대학발전추진위원회 학생위원
김국래	국문 85	1989년 인문대 학생회장 1990년 서해문학회 회장	김주희	전공 89	1991년 인천대학보 편집장
배진교	토목 86	1986년 토목과 1학년 대표 1988년 공대학생회 학술부장 1990년 총학 사회부장	김덕수	재료 90	1994년 총학 정책국장

인천대-선인학원의 재투는 『善仁學園 市立化 成功史』나 『인천대 학교 30년사』에서 정리된 적이 있다.<sup>6)</sup> 아쉽게도 선인학원이 시·공립화로 마무리되는 14년간 일관되게 결정적 동력이자 투쟁의 핵심주체였던 인천대 학생들의 목소리는 소략하고 그 비중도 작다. 교수나 학교측 시각에 따른 결과 중심의 서술로서 1980년부터 매시기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학생들의 생각이나 행동, 그것을 낳은 과정과 배경이 생략되어 있다.<sup>7)</sup> 그러나 선인학원 민주화 14년 대장정을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한

6) 장석우 편(1996);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7) 한 예를 들어 장석우 편(1996)의 기록사진들은 모두 학생들의 투쟁 장면이지만 제10편 증언편

주체는 인천대 학생운동이었다.

## 2. 인천대 학생운동의 재단투쟁 시작과 역량 확산 (1980~1986년)

### 1) 인천대 학생 문화와 운동의 특징

백인엽은 선인학원 산하 학교 교무실에 백선엽-백인엽 형제의 사진을 걸어놓고 ‘백 장군’ 건학정신을 주입시켰던 “사학왕국의 제왕”이었다.<sup>8)</sup> 1981년까지는 인천대생들에게 넥타이와 정장을 입도록 강요하고 학생과장이 일일이 체크까지 했다. 만주군 출신 백인엽은 ‘백 장군’으로 불리고 거수경례받는 것을 좋아했다. “학생과장이 수첩 들고 정문에서 기다리다가 양복 안 입고 간 학생이 보이면 학과하고 학번 적어 갔지요 (심상준).” “뺨대만 있는 코란도 썰차 타고 가다 학생들에게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물어 ‘백인엽 장군입니다’라고 답하면 지폐를 주고 그랬습니다(정재식).”

---

에 수록된 12명의 증언자 중 학생은 ‘86년 인천대·전문대생들의 투쟁기록’뿐이다. 이 책 편찬 과정에서 당시의 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인천대 학생운동의 주체들은, 장 교수가 해임되는 1991년을 ‘재단 정상화 운동의 태동(79쪽)’으로 설정하고 장 교수의 ‘단독’ 철야농성이 부각된 이 책이 1980년부터 지속된 학생들의 끈질긴 재투를 평가절하하고 교수들 중심의 재투로 서술했다고 비판한다. “공개적인 자료를 갖고 자기 중심으로만 보니까 이면의 내막이 없는 서술이 된 거죠(정수영).”

8) 「15년 동안 16개 학교 세운 사학왕국」, 『경향신문』 1981/03/18; 「15개 학교왕국의 제왕」, 『동아일보』 1981/03/18; 「무법 18년 … ‘선인왕국」, 『경향신문』 1981/03/24.

건물 1층에만 화장실이 있어 학생들은 숨 가쁘게 층계를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본관 뒤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다. 건물 주변에 바위 덩어리나 깊은 웅덩이가 방치되어 있었고, 캠퍼스 한복판에 집값 협상이 되지 않았는지 쓰러질 듯한 민가도 있었다. 장학금은 거의 없었다. 교수 수는 부족한데 무능교수가 적지 않았다.<sup>9)</sup> 학원과 구성원을 대하는 ‘교주’의 원시적 인식과 행태에 더해 열악한 환경은 인천대생들의 분노감을 더하는 요인이었다.

인천대는 학생운동이나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대학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이 보인다. 우선 인천대생들은 다른 대학보다 평균연령이 높다. 10대 후반 20대 초 연령대에 다수를 차지하면서도 ‘공순이’ ‘공돌이’들로 비칭되던 청년세대에게 학교와 배움을 그렇게 만들었던 1970년대의 시대적 환경이 인천대에서 교차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기대감을 갖고 들어온 대학의 환경은 극심한 박탈감만 안겨줬다. 인천대는 언제든 지 터질 수 있는 화약을 안고 있었다.

“나이 들어 입학하다 보니까 좀 알고 생각이 깊어서 그런 건지. 3수, 군대 갔다 온 친구들, 직장 다니다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이런저런 한(恨)이 컸던 만큼 대학에 대한 갈망 또한 큰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입학하고 보니 자유는커녕 그런 아주 저질적인 제약들이 들어오니까 불만이 쌓여 살짝 불을 지르면 언제든지 학생들이 구름떼처럼 모여들었지요. 재단 문제 하면 용수철 튀듯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우리학교 스타일이 된 거지요(심상준).” “이게 대학이냐 하는 불만이 가득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정수영).” 이 점은 교수도 인정했다. “우리학교는 전부 다 삼수해서 오니까. 다른 대학보다 나이도 많고 사립판단이 있어 한 번 하면 끝까

9)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28); 장석우 편(1996, 10).

지 가더라고. 그게 다른 학교와 다른 점이지요(안경수).”

실제로 인천대생들은 개교 1년 만인 1980년 3월 30일에 벌어진 최초의 재단투쟁 시위에서 “설립자는 학교의 운영에 간섭하지 말 것”을 주장했다. 이후 거의 매년 계속된 재투 때마다 학생들 상당수 또는 대부분이 적극 동조하고 참여했다. 학내 문제로 제한되었던 재투가 학생들의식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사회민주화운동과 결합되는 과정에서도 인천대 학생운동에서 재투는 1993년까지 늘 핵심내용이었다. 역동적이고 끈질긴 인천대 학생 문화와 운동의 큰 특징이다. 인천대생들의 이러한 역동성의 배경을 당시 학생들은 “한(恨)”이라고 집약해서 표현했다.

“백인엽 평판이 워낙 안 좋았어요. 처음부터 백인엽 퇴진이었어요, 무조건. 이 점에 관한 한 학생들은 어떤 관용도 없었습니다(고도현).” “학내투쟁의 초점은 1980년 봄부터 초지일관 무조건 재단, 백인엽 퇴진이었습니다. 무슨 전술적 고려 따위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아, 백인엽은 안 되겠다’는 구호에 뜨겁게 호응했지요. 1980년 3월 30일부터 운동을 시작한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힘이, 역동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저에는 한(恨)이 깔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심상준).”

‘공공의 적’의 존재는 운동권이 양성되는 토양으로 작용했고 인천대의 재투가 사회민주화운동과 결합되는 배경이 되었다. 재투가 고양되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재단정상화 문제가 결국 정치민주화의 흐름과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의식으로 자연스럽게 발전되어갔다. 1986년 대투쟁에 이르면 이 두 흐름은 대체로 하나로 모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향점이 재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우들이 학교문제에 관심을 갖고 구름같이 모여드는데 거기에서 시작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80년대 초에는 정치적 이슈를 제기하면 썰물처럼 빠져나간 적도 있었습니지만, 86년 무렵부터 결국 둘은 하나가 되어 갔죠.



재단 문제가 거꾸로 인천대생들에게 중요한 모멘트를 부여한 거지요. 몇 번 집회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친구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씨클로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직화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됐죠(심상준).”

신설대학이나 학생운동권 역량이 작은 대학에는 씨클 조직이나 학습에서 메이저 캠퍼스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1980년 초에 태동한 인천대 이념씨클은 학습 커리큘럼과 세미나를 스스로의 역량으로 꾸려갔다. “저희 학교는 외부 프락션이 잘 안 되는 학교예요(심상준).” 이 역시 인천대 학생운동의 큰 특징이다.

다른 대학과 비교할 때 또 하나의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재단문제라는 특수성과 학생들 성향이 어우러진 때문인지 인천대 학생운동권은 큰 흐름에서 1990년대까지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정치노선이 한 쪽으로 모아지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더 큰 폭발력과 질긴 힘을 발휘하면서 이기는 싸움을 꾸려갈 수 있었다.

“우리 학교는 NL, PD, CA 등 해서 심각하게 나뉘지 않았어요(심상준).” “거의 한 라인이었지요(김국래).” “사회대 빼고는(정성준).” “항상 총학부터 단대까지 거의 똑같이 갔으니까. 사회과학대만 PD 친구들이 있었지요(정재식).” “PD쪽과 가까웠던 주희가 들으면 섭섭하겠네(권정달).” “좀 가까웠지요. 학보사니까. 하하하(김주희).”

단일대오 흐름이 유지되면서 노선 갈등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것은 인천대생 모두가 공유하는 ‘공공의 적’이 존재했기 때문인 점도 있다. “다른 학교처럼 이런 라인, 저런 라인 있고 복잡하면 싸움이 힘을 못 받아요. 그런데 인천대는 ‘야, 이거하자’고 의견이 모이면 바로 강한 추동력을 발휘합니다. 여러 조건 달지 않고 싸움을 단순화시킨 거지요. 그런 특징이 우리가 이기는 길을 갈 수 있던 것 같아요(심상준).” “복잡하면 내부에서 논쟁만 하다가 해가 질 수밖에 없잖아요(김국래).” 이러한 평가

에 제3자인 교수도 동의한다. “맞아. 우리학교 학생들이 사회대 외에는 한 방향으로. 학생운동이 뭉쳐서 일사불란했거든(안경수).”

인천대 학생운동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전남향우회 영향력이 매우 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0년부터 그러했다. 인천에 호남사람이 많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 4월 총학 선거에서도 전남향우회 멤버들이 출마했다. 1, 2학년밖에 없던 인천대생들이 ‘80년 봄’ 투쟁에 적극 참여했을 때에도 80학번 심상준이 인하대 총학에 인천대 ‘메신저’역을 하는 등 전남향우회가 주도한 것이었다. 전남향우회는 당시 총학의 취약한 운동성을 보강한 것이다. 단순한 향우회는 아니었고 스티디도 했던 준이념씨클 역할을 한 것이다.

1982년에 부임한 교수는 백인엽이 ‘백파’ 학생조직을 만든 것도 전남향우회에 대항하기 위해서였다고 이해한다. “백인엽이 전남향우회에 대항하기 위해 체육과 교수들을 시켜 돈 대주면서 영남향우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교수 입장에서 보면 문화팀 탈패하고, 학술팀 독토 [독서토론회] 두 씨클이 있었지만, 메인 파워는 전남향우회였어요(안경수).” 그만큼 전남향우회는 학내 영향력이 컸다. 1990년대 들어서도 마찬가지였다. “1990년에도 전남향우회가 5월 집회 때 향우회 깃발을 들고 나왔어요. 제가 90학번인데 향우회에서 씨클에 들라고 권해서 운동에 나섰고 씨클에 가입했어요(김덕수).”

## 2) 최초의 재단투쟁과 운동권 씨클의 출범

당시의 운동권 학생들은 1980년 3월 30일을 인천대 학생운동이 시작한 날로 뚜렷하게 기억한다. ‘서울의 봄’ 분위기는 인천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대생들의 재투는 1980년 3월 30일 오전 10시 1, 2학년생

800여 명<sup>10)</sup>이 본관 앞 계단에서 모여 학원자율화와 학생자치권 강화 등을 주장하며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전교생은 960명이었다. 거의 전교생이 모인 것이다. 이후 150여 학생들이 철야농성을 벌였다. “3월 30일 오후 4시인가까지 백인엽 퇴진이니 이런 거 답을 주기로 했어요. 대표자 몇 명 뽑아 학교 측과 협상에 들어간 거죠. 근데 학교 측에서 안 줬어. 협상이 결렬되어 내가 유리창을 전부 깨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학교에서 철야를 했어요. 3월 30일 저녁부터 31일까지(심상준).”

당시 학생들의 요구사항<sup>11)</sup> 보면 “설립자는 학교의 운영에 간섭하지 말 것”을 포함한 교수 처우 개선 문제까지 학생들이 제기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교수협의회를 교내 최고기관으로 승격시킬 것”, “교수의 인격존중과 처우를 개선할 것”, “교수들을 위한 출퇴근용 스쿨버스 운행”, “교수실을 1인 1실로 할 것” 등의 요구사항은 재단이 교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눈에 보여준다. 학생들 눈에도 교수들이 딱해 보였던 것이다. 당연히 학생으로서의 자존심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4월 1일에는 인천전문대생 200여 명이 학원자치권 강화 등을 요구하며 2시간여 동안 시위를 벌였다. 재단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에 4월 2일부터 11(12)일까지 임시휴강 조치를 내렸다.<sup>12)</sup> 학생회도 없고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념 씨클도 없이 조직적 지도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어난 첫 싸움은 무력하게 끝난 셈이었다. “그 때는 그렇게 모였는데,

10) 장석우 편(1996, 12)에는 3월 31일, 500명으로 서술되어 있다.

11) 내용은 교수 처우 개선, 총학생회 부활, 학교시설 보완과 장학금 확충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 2010, 127).

12) 「인천대·인천공전 임시휴강 결정」, 『동아일보』 1980/04/02; 「인천대·인천공전도」, 『경향신문』 1980/04/02. 인천대는 4월 11일까지, 인천공전은 12일까지 휴강했다. 「大學陣痛 모두 21개校 休講」, 『경향신문』 1980/04/11.

총학도 없지. 목소리 큰 사람이 나가서 하는 거야. 지도부가 없으니 3월 31일에 철야 한 번 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지요(심상준).”

인천대 최초의 재투는 잠시 가라앉았다. 인천대는 임시휴강이 풀린 후 다른 학교보다 늦게 4월 말이 되어서야 최초로 총학생회를 구성했다. 전남향우회도 총학 선거에 후보자를 내면서 적극 나섰다. “기호 1번이 홍성복, 2번이 박종관, 3번이 또 누구. 1번팀은 홍성복과 윤석진, 기계과 건축과였지요. 둘 다 79학번이었고. 2번이 우리팀인데 박종관, 박철희가 런닝메이트였고. 전남향우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선거팀을 만든 겁니다. 그러나 후보들마다 다 학교정상화 문제를 제기했지요. 재단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 1번팀이었지요. 이념적 색채가 가장 강한 우리 팀은 졌고요(심상준).”

그러나 총학이 구성되자마자 5월 17일 휴교령 철폐를 맞았다. 세 명의 교수가 학생 선동 혐의로 해직되었다. 전체 교수 34명을 감안하면 많은 인원이었다. 신군부세력이 인천대 문제를 그만큼 중시했다는 반증 일 수 있다.

‘80년 봄’의 투쟁에 인천대생들도 인하대와 연락하면서 적극 참여했다. 전남향우회 구심력이 큰 가운데 도화동 시위에서 인천대생은 참가자들 기억에 따르면 100여 명 정도가 모였다. 이 시위로 연행된 심상준, 박종관, 김성일 등은 유기정학을 맞았다. 학생회장 홍성복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제적 구속되었다.<sup>13)</sup>

109일간의 휴교령<sup>14)</sup> 와중에도 인천대에는 최초의 이념싸움이 태동

---

13) 그는 8월 25일 공소기각으로 석방되었다(「首都군단 戒嚴普通軍法會議 大學生 15명 釋放」, 『경향신문』 1980/08/20).

14) 「109일만의 登校－大學門이 열렸다」, 『동아일보』 1980/09/03.

하기 시작했다. 심상준은 총학생회장 홍성복이 5월에 전국대학학생회장단 회의에서 만난 이대 탈패 회장을 소개받아 탈춤을 배우면서 전남향우회를 포함한 연줄로 각과에서 14명을 모아 모임을 꾸려가기 시작했다. 1980년 여름부터 활동을 시작한 탈반(민속학연구회)은 1983년 여름에야 씨클 등록을 했다.

“상황이 그랬지요. 탈춤을 배우면서 탈반을 만든 거니까. 민속학연구회였어요. 아는 사람 연줄로 각과에서 한두 명씩 모으고 전남향우회 쪽도 부르고, 인천대 최초의 이념씨클인 썸이지요. 당시에 등록을 못했지요. 그런데 관선이사 체제에서 김민하 학장이 우리를 과격적으로 밀어줬어요. 역사학 하시는 강성조 교수를 딱 찍어서 당신이 탈패 지도교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등록이 됐어요. 김총장은 나중에 중앙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개혁적 사고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심상준).”

씨클 등록 배경은 탈반을 조직한 주체의 평가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당시 군부정권은 학생들 동향 파악을 가장 중시했다. 모든 대학에서 학교본부(학생처·학생과)는 각 기관에서 파견된 요원들과 동거하는 공간이었다. 즉 학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운동권 씨클을 등록시켜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 필요가 컸을 것이다.

탈반은 이후 인천대 학생운동과 문화패의 중추가 되었다. 학습 커리큘럼과 세미나는 “자생적”으로 꾸려갔다. 등록 때까지 씨클룸이 없어 3년 동안 여기저기 전전하면서 모임을 가졌다. “1980년에 서울농대가 인천교회 쪽을 통해 프락션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나는 ‘안 받는다’, ‘자생하겠다’ 해서 각자 다니는 교회나 성당이라든가 아는 선배들 통해 커리큘럼 받고 자료 모으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학습했어요. 심지어 낮에는 비는 림싸롱에서도 스테디를 했더니깐요. 아니면 대학로 진화춘이나 이대 앞 데카메론이나 어디 중국집 뒷방에서.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

과의 대화>니 이런 책으로(심상준).”

### 3) 사회민주화운동과 결합하기 시작한 재단투쟁

1981년 1월, 문교부는 사학비리 척결을 내걸고 선인학원(인천대학), 고황학원(경희대), 명지학원(명지대), 한양대, 조선대 등 5개 사학에 2주간(1.28~2.10) 학사지도감사를 실시했다. 5개 대학은 모두 1980년 봄에 즉별운영에 따른 소요를 빚은 대학들이었다. 이 감사는 신군부세력이 학원소요의 주원인을 사학 비리 때문이라고 규정하고 “정치적 격동을 자극하는 요인”을 제거한다는 치적을 선전하면서 총칼로 권력을 장악한 자신들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은폐하는 속죄양이 필요한 시점에 실시된 것이었다.<sup>15)</sup>

당연히 신군부세력의 교육철학이 담긴 것일 수 없었다. 당시 학생들 생각도 비슷했다. “우리들이 집회만 했지 사실 심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나 전두환 정권이 보기에 너무 심했던 백인엽의 부정, 비리를 정리한다고 과시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좋은 소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심상준).” “처음에는 사회정화 차원에서 정치적 본보기로 삼겠다는 의도였다고 봅니다(김국래).”

1981년 3월 18일, 인천대학 제3회 입학식 날 백인엽은 횡령, 사립학교법과 건축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sup>16)</sup> 5개 대학 설립자 가운데 유일한

---

15) 「文教部 漢陽大 慶熙大 朝鮮大 明知大 仁川大 5개 私大學事監査」, 『경향신문』 1981/01/29; 「私立大學 學事監査」, 『동아일보』 1981/01/30. 감사 내용에 대해서는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29); 장석우 편(1996, 12); 「부정편입학 6백 47명」, 『경향신문』 1981/03/14; 「부정편입학 증점 선인학원 등 수사」, 『매일경제』 1981/03/14; 「찬조금 유용 여부 수사」, 『경향신문』 1981/03/16; 「전여명 찬조금 50억」, 『동아일보』 1981/03/16; 「私大非理를 없애는 길(사설)」, 『동아일보』 1981/03/24.

구속자였다. 그만큼 죄질이 나빴다. 18일 아침 구속 직전, 백인엽은 검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처벌을 감수하겠다. 또 선인학원측에 어떤 조치를 내려도 달게 받겠다”고<sup>17)</sup> 고개를 떨궜고 3월 22일, 「선인학원 헌납서」도 제출했다.<sup>18)</sup> 4월 6일, 이사회는 학교법인 국가헌납, 백인엽과 이사 전원 사임을 의결했다.<sup>19)</sup> 4월 13일, 문교부는 신기석, 김민하 등 관선이사 7명을 임명했다.<sup>20)</sup>

이후 백인엽은 8월 31일 항소심에서 3년 징역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어 석방되었다.<sup>21)</sup> 예상대로 신군부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는 오래 가지 못했다. 백인엽이 석방되기도 전에 문교부 일부 실무진들은 백인엽의 학원 국가헌납을 두고 정부의 재정규모상 2개 국립대학을 운영하기 어렵고, 경기도 재정형편으로는 14개 공립학교를 인수·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흘렸다. 결국 7월 25일, 관선이사회는 백인엽을 이사로 선임했고 8월 27일, 문교부가 승인했다.<sup>22)</sup> 백인엽이 석방되자 일부 보직교수들은 김민하 학장을 비난하기 시작했고 주요 문서가 빼돌려져 ‘신촌(백인

---

16) 「백인엽씨(선인학원 상무이사) 구속」, 『동아일보』 1981/03/18. 백인엽의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28억원 더 빼돌려」, 『동아일보』 1981/03/19; 「교제비 28억 유용」, 『경향신문』 1981/03/19 참조.

17) 「밝혀진 善仁學園의 非理 15년동안 16개學校 세운 私學王國」, 『경향신문』 1981/03/18.

18) 「학교 헌납서」의 전문은 장석우 편(1996, 15);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30) 참조.

19) 「선인학원 국가헌납 이사회 결의」, 『매일경제』 1981/04/06.

20) 「선인학원 관선이사 선임」, 『동아일보』 1981/04/13; 「선인학원 이사장 신기석씨를 선출」, 『동아일보』 1981/04/15.

21) 「백인엽 피고에 징역 5년 선고」, 『동아일보』 1981/05/30; 「백인엽씨 5년 선고」, 『경향신문』 1981/05/30; 「백인엽씨 집유」, 『동아일보』 1981/08/31; 「백인엽씨 집유」, 『경향신문』 1981/08/31.

22) 「선인학원 관선이사 백인엽 씨 추가선임」, 『동아일보』 1981/08/27.

업 자택)’의 지시를 따른다는 소문이 학내에 파다하게 퍼졌다.<sup>23)</sup> 결국 1983년 3월 12일, 마지막 관선이사회는 8명 이사를 문교부와 백 측이 4명씩 추천 선임하고, 이사장과 학장은 백 측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결정했다.<sup>24)</sup> 백인엽이 선인학원 운영권을 다시 장악하고<sup>25)</sup> 학교 재정지출을 일시 중지시키기까지 했지만, 이규호 문교부장관은 백 측이 추천한 유봉철 학장 취임을 불허하는 데 그쳤다. 이 때문에 백 측은 백인엽에 비판적인 교직원 사퇴 등을 조건으로 김민하 학장 유임도 생각했지만, 김 학장 사퇴로 결국 문교부는 1983년 7월 민병기 신임학장을 승인했다.<sup>26)</sup>

백인엽은 1981년 말경부터 학내에 비선조직을 만들기 시작했다. 86년 대투쟁 과정에서 비로소 실체가 드러난 ‘호교회’나 측근 교직원들을 통해 학내 동향을 파악하면서 자기 세력 꾸리기에 집중했다. “백인엽이 전남향우회에 대항하기 위해 체육과 교수들을 시켜 돈 대주면서 영남향우회를 만들었지. 1982년 부임해서 보니 학교에 뭘 향우회가 저렇게 난리를 치나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호교회를 만든다 하더라고. 자기 들끼리 사람 붙여 놓고 백인엽이 보고 받고 이랬으니까(안경수).” “영남향우회는 아마추어 야구부인가, 바이킹인가 그쪽 중심으로 모였죠(심상준).” “당시는 백측 직원들이 교수보다 파워가 셧어요(권정달).”

그러나 학생운동권도 다양하게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했다. 언더조

23) 장석우 편(1996, 22).

24)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48).

25) 「국가헌납 선인학원 운영권 설립자 측에」, 『동아일보』 1983/03/12; 「선인학원 정상화 새 이사장 이호씨」, 『경향신문』 1983/03/12.

26) 「文教部, 선인학원 다시 말썽 일까봐 學長승인 거부」, 『동아일보』 1983/05/27; 「閔丙岐 인천대 학장 문교부서 승인」, 『경향신문』 1983/07/07. 이 장관은 김학장에게 2년 2개월 동안 인천대학장으로 재직하면서 학원정상화와 인천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여했다(「金 인천대학장 사직」, 『동아일보』 1983/07/15).



직 기러기팀이 생겼다. “기러기팀은 1980년 겨울에 프락션 비슷하게 들어와 만들어진 조직인데 인천 샘터감리교회 김성복 목사 동생인 영문과 80학번 김성일 중심으로 1982년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어요. 10명 안팎. 나중에 PD쪽에 치우쳤죠. 그 사이에 저희가 만든 건데 현대문학연구회가 잠깐 있었고, 역사문제연구회가 85년도에 있었고요(심상준).” “85학번인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 서울팀과 같이 학습하는 언더에 있었어요(정성준).” 1983, 84년 무렵에는 아카데미 성원들이 독토(독서토론회)를 조직했다. 이로써 탈패와 독토, 인천대 학생운동의 두 중심 축이 만들어진 것이다. “1980년대 전반기 운동권에는 탈패와 독토를 중심으로 두 개의 씨클 축이 형성되었습니다(김국래).” 두 그룹은 당연히 세 경쟁도 해서 우스개소리도 낳았다. “탈패가 공부 안 한다면서 우리 독토 선배들이 탈패를 좀 무시했지요. 하하하(정재식).”

1983년 11월 ‘학원자율화조치’ 이후 인천대의 총학 구성은 낮은 편이었다. 1984년 여름, 학생 측(심상준, 김철 등 3명)과 학교 측(안경수 교수 등 3명)이 학생회 회칙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라는 입장과 교수, 학생, 재단이라는 입장이 맞서다가 학생 측이 자율적으로 1984년 11월에 총학 선거를 진행했다. 다섯 명이나 후보가 나온 1984년 총학 선거에 탈패와 독토 두 그룹은 “합의해서 후보를 한 명으로 냈다(심상준).”

1985년 들어 인천대생들은 사회민주화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5·17 인천연합행사에는 1학년생들까지 참여할 정도였다. 후일 총학생회장과 단대학생회장으로서 인천대 학생운동의 핵심이 되는 정성준, 김국래 두 1학년생은 인천 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처음 만났다. “그때 인천대만 버스를 안 보내줘서 선배들이 학생과를 찾아가 집기를 내던지고 엎어버렸어요. 본때를 보여준다는 거였지요(정성준).” “그만큼 우리

는 상황이 너무 열악했어요(김덕수).” 1985년 10월 16일에는 총학 주최로 100여 명이 학생회관에서 ‘부마사태 기념식 및 민족자주수호 쉼기대회’를 가진 후 경찰과 투석전을 벌이면서 가두진출을 시도했다.<sup>27)</sup>

운동권의 학내 영향력도 커져갔다. “빈약한 대학문화를 운동권이 조금씩 채워갔지요. 무슨 과일제나 미인선발대회 이런 것들 하고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다른 대학처럼 축제 명칭을 대동제로 바꾼 게 85년 총학부터였지요(심상준).” 재야운동단체와도 연계도 이뤄졌다. “인천에 인사연, 인천지역사회운동연합회가 있었어요. 초대 학생회장 홍성복이 인사연 의장을 했었지요, 이호웅 씨 다음으로. 성복이 형을 통해 우리 쪽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었어요(심상준).”

1985년 5월, 총학은 ‘학원민주화 추진기간’을 설정하고 종합도서관 및 대학원관 신축공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8일부터 20일까지 학장실을 점거했다. 이 시위는 백 측의 공작이 작용한 것이었다. 그러나 뒤집어 보면, 재단이 공작을 피해야 할 정도로 학생운동권 역량이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즉 5월 30일, 이사회는 학생들 요구를 수용한다는 명분으로 ‘건설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한 후 6월 17일, 백인엽을 건설본부 자문위원에 위촉했다. 1986년 2월 18일, 이호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인학원을 설립자에게 돌려준다는 당국의 방침을 확인했다고 보고했다.<sup>28)</sup>

---

27) 「인천대 백여명도, 『동아일보』 1985/10/17.

28) 장석우 편(1996, 28-29).

#### 4) 학생운동 역량 확산의 계기, 86년 대투쟁과 교수들의 ‘수동적’ 합세

1986년 새 학기 들어 백인엽이 다시 재단을 장악했다는 위기감이 학교에 짙 퍼졌다. 이 와중에 여러 씨클이 만들어지고 학회 활동도 활성화되었다. 인천대생들은 5·3 인천투쟁에 적극 참여했다. 이 시위로 인한 구속영장 신청자 129명 중 총학생회장 김교홍(정외 3) 등 6명의 인천대생이 포함되었고<sup>29)</sup> 이후 1985년도 총학생회장 이재영과 홍보부차장 박구옥이 추가 구속되었다.<sup>30)</sup> 5월 8일에는 ‘전방입소거부’ ‘독재타도’ 등을 외치며 교내시위를 벌였다.<sup>31)</sup>

이처럼 1986년에는 김교홍이 학생회장에 당선되자마자 구속되고 8월 1일 집행유예로 석방되는<sup>32)</sup> 와중에 ‘재투위(재단정상화투쟁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총학생회장이 없는 상황에서 총학 총무부장 김정환과 홍보부장 김종택 등이 1986년도 재투를 이끌어간 거지요(정수영).” 재투위는 1985년 총학(회장 이재영)이 만든 세 특별기구 즉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삼민투), 학원복지위원회(학복위), 학내문제대책위원회(학대위) 중 학대위를 대체한 조직이었다. “우리 학교는 재단문제가 늘어지니까 그걸 대체하는 조직으로 남겨 놔던 거죠(심상준).”

1986년 10월 14일, 김정환과 김종택 등이 재투위 결성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10월 18일 학생들은 점거농성중인 학장실에서 ‘호교회’ 자료

29) 「인천시위 백29명 拘束令狀」, 『동아일보』 1986/05/05; 「‘인천시위’ 구속 대상자 백29명 명단」, 『경향신문』 1986/05/05.

30) 「‘인천사태’ 54명 추가수배」, 『동아일보』 1986/05/12; 「구속·수배자 명단」, 『경향신문』 1986/05/19.

31) 「20개대 6천명 시위」, 『동아일보』 1986/05/09.

32) 「‘인천사태’ 2명 실형 13명 집유」, 『동아일보』 1986/08/01; 「‘인천사태’ 기소 대학생 등 15명 2명 실형·13명 집유」, 『경향신문』 1986/08/01.

들과 일부 명단, ‘매복조·미행조 특별활동 지원비’, ‘학생 포섭비’, ‘호교활동 지원비’ 등에 대한 교비지출 내역이 기록된 서정홍 학장 비밀노트를 발견했다.<sup>33)</sup> 비로소 ‘백파’ 교수들과 ‘호교회’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백파교수들 물러가라고 대자보에 적어 폭로했잖아요. 과별로(심상준).” “25명 명단을 공개해 학생회에서 대자보 한 장에 한 글자씩 해서, 본관 14층 건물부터 도배를 했었지요(정재식).” “백파 교수실 못질 해 봉쇄하고. 그 때는 백하면 못질 했어요(권정달).”

1986년 무렵부터 인천대생들은 백인엽 추종 교직원을 ‘백파’라 불렀다. 총학 간부들은 백인엽의 중요한 학내 정보원인 ‘백파’를 파악하고 있었다. “공개적으로 활동은 못했지만 연초에 백인엽 집에 세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백파였죠(김국래).” “체육과나 ‘호교회’ 중심의 백파 학생들도 있었죠(고도현).” “파워야 뭐. 명단 빼내기 전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었는데 뭘. 실체를 드러내고 활동하지 못한 거죠(심상준).” “안기부에서도 장학금을 주고. 당시 내가 알기로는 20명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안경수).” 안기부, 즉 국가권력이 백인엽을 옹호하면서 인천대 학원민주화를 전면 부정하는 상황에서, 인천대 재투는 사회민주화운동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총학과 학회연합회가 공동 개최한 학생총회에는 연일 1,000~2,000 명이 모였다. 이 와중에 10월 21일, 30여 축구부 학생들에 의한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sup>34)</sup> 백축이 불난 집에 바람을 불어넣는 우를 범한 셈이었다. “백주대낮에 하키 채, 못이 박힌 각목, 쇠파이프 등을 시위 학생들에

33) 장석우 편(1996, 39-41).

34) 장석우 편(1996, 40-42);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52-153). 축구부는 김민하 학장 때 창단된 후 1년 만에 전국대학축구대회 준우승, 전국체육대회 우승, 인도 DMC 축구 우승 등 ‘대학축구의 신화’를 만들었다.

게 휘둘렸고 본관 쪽으로 도망가는 학생까지 쫓아 못매질을 하는 무차별한 폭행이 벌어지니까. 학우들이 열 받아 바로 체육관으로 몰려가 유리창 다 깨고, 농구대 다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대자보를 막 붙였어요. 다음 날 열린 비상학생총회에는 4학년 빼고 다 모였을 겁니다(정수영).” “이때의 이벤트인 백인엽 모의장례식은 폭력사태로 확 퍼진 대중 열기를 모았지요. 헬기까지 떠서 위협할 정도였어요(심상준).” 인천대생들의 열기를 모은 비상학생총회에는 무려 3,500명이 참여했다. 인천대 사상 최대 규모 집회였다.

학생들은 학장실 등 보직교수실을 점거했다. 1천여 명이 ‘자퇴서’를 썼다. ‘백인엽 타도’를 외치는 스크림 대열에 중·고생들은 창밖으로 지지의 환호를 보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백인엽은 10월 22일 밤 10시 30분, 서정홍 학장과 임영별 상임이사에게 “학원 운영에서 손을 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10월 23일 새벽 1시경 긴급소집된 교수회의에 참여한 70여 교수들에게 대하측은 사태수습을 부탁했다. 2시 30분경 10명 교수들이 철야농성 중이던 재투위 대표(김정환, 김종택, 김 철, 강영문)와 백인엽 완전 퇴진 건의, 축구부 해체 건의, 전 교무위원의 보직사퇴 건의 등에 합의했다.<sup>35)</sup> 인천대 재투 과정에서 처음으로 교수들이 학생들의 투쟁에 대한 중재자로서 ‘수동적으로’ 합세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러나 10월 23일 이후 시위는 오히려 열기를 더해 갔다. 1천여 인천대생들은 전문대생들과 함께 백인엽이 학원 운영에서 완전히 손을 떼 것, 해임된 전문대학장 임청 교수 사표 반려, 서정홍 학장과 어용교수들 퇴진 등을 요구했다. 학생들은 백씨의 구두약속은 믿을 수 없고 신문지상에 공개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10월 25일에는 학생들이 ‘호교회’ 학생

35) 장석우 편(1996, 43);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54).

들과 정보기관 등에 지출된 경비 내역을 공개했다. 10월 29일 오전에는 교수회의가 열려 수습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백인엽 완전 퇴진, 이사진 전면 개편 등을 주장하는 ‘교수결의문’을 발표했다.<sup>36)</sup> 교수들까지 학생들이 주장에 동조하자 문교부는 10월 31일, 무기휴교령을 내렸다. 학교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250여 학생들은 학장실과 교무처장실 등에서 계속 농성을 벌였다.<sup>37)</sup>

재투위 간부들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식량과 모포 등을 준비하며 장기간에 대비했다. 다음 날 11월 1일 아침에는 2천여 경찰과 소방차 등이 동원되어 농성장인 본관 11층(도서관) 진입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숙의 끝에 도서관에는 13명만 남기로 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만 남고 다른 학생들은 다 철수하자고 결정한 거였지요(심상준).”<sup>38)</sup> 10시경 학생대표 김종택이 8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0분 후 13명은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sup>39)</sup> 10월 14일부터 19일간의 대투쟁은 일단 막을 내렸다.

1986년은 ‘5·3 인천사태’, 건대 농성, 개헌공방 등으로 점철된 격동의 시기였다. 특히 건대농성은 사흘만인 10월 31일에 최대 구속영장 신청(1,288명)을 낳으며 진압되었다. 인천대생도 영장 신청자 중 5명,<sup>40)</sup> 구

36) 장석우 편(1996, 45).

37) 「인천대 무기 휴교령」, 『동아일보』 1986/10/31; 「인천대에 휴교령」, 『경향신문』 1986/10/31.

38) “시간이 흐를수록 교내 농성 학생의 수는 계속 줄어들기만(장석우 1996, 46)”했다는 서술은 참가 학생들 의중과 다르다.

39) 「인천대 점거농성 13명 경찰 진입 … 강제연행」, 『동아일보』 1986/11/01. 김정환, 김종택, 김철(행정학과), 박찬영(생물학과), 사공혜녀(수학과) 등 5명은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 강형동 등 8명은 구류처분을 받았다(「인천대 점거농성 5명에 영장 신청 8명은 즉심」, 『동아일보』 1986/11/04). 대학 측은 구속학생들을 폭력과 업무방해, 특수절도 등으로 고발했고, 이들이 석방되자마자 12월 7일, 제적시켰다. 징계는 10월 21일 폭력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축구부 학생들에게도 내려졌다(장석우 편 1996, 47-48).

속기소자 395명 중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0)</sup> 인천대생들은 정점에 오른 재투 와중에서도 정치투쟁에 적극 참여한 것이다. 건대농성이 진압된 날, 인천대에 무기휴교령이 내려졌고 건대에 출동했던 경찰병력이 그대로 인천대로 달려갔다.

그러나 1986년 재투는 인천대 학생운동의 재투 양상을 질적으로 바꿔놓았다. 무엇보다 재투가 사회민주화운동 범주 안에 확실하게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이전 재투는 문제제기를 한 소수가 재단의 탄압을 받는 양상이었지요. 그런데 1986년에는 양상이 확 바뀐 거지요. 호교회라든가 대학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숨고, 축구부 학생들이 잘못했다, 해체만은 말아 달라고 피켓을 들었어요. 아침 등굣길에. 반면에 3천여 학우들은 종일 운동장 돌면서 시위를 계속 했어요, 연일. 재단정상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확실하게 각인되면서 동시에 학원민주화 문제를 정치민주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두드러집니다. 사실 저는 그 때 운동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5·18 진실이 밝혀지고, 전방입소 거부, 문무대 거부, 서울대 분신사건 그게 다 86년도에 일어났잖아요. 학우들 사이에 학내민주화 열망과 정치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결합되는 시점에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 폭력사태를 보니까 확 깨면서 들불처럼 번진 거죠(정수영).”

학생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1986년 대투쟁은 1980년대 전반기를 지나는 동안 운동역량이 축적된 결과였고 이후 재투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맞아요, 역량이 커졌죠. 전에는 대자보를 붙이면, 직원들이나 학교 사주를 받은 친구들이 바로 찢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에는

40) 「'建大사건' 구속영장 신청자 명단, 『동아일보』 1986/11/04.

41) 「'建大사건' 구속기소자 명단, 『동아일보』 1986/12/02.

운동권이나 씨클 멤버들이 대자보를 스크림해서 지켜요. 학우들이 정당성이 어디 있는지 확신한 거죠. 그런데 3천 병력이 깔리면서 진압되고 휴교령 기간 동안에는 암울함, 이런 것도 공존했지요. 그러면서 이제 동아리 인원도 막 늘어나고, 운동권이 확산되면서 총학도 그 이후 계속 탄탄해지는 거고(정수영).”

### 3. 인천대 학생운동의 대중적 조직화와 재단투쟁의 마무리 (1987~1993년)

#### 1) 대중적 재단투쟁의 일상화

1986년 12월 22일, 52일 만에 휴교령은 해제되었지만 학원에서 물러난다는 백인엽의 제스처와 사실상 백인엽을 지원하는 교육부의 무사안일식 감사가 되풀이되었다. 그 결과 백인엽은 학원운영권을 또다시 장악했다.

백인엽은 1986년 12월 2일, 선인학원에서 물러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 11월 5일부터 선인학원 종합감사를 실시한 문교부는 12월 10일, 이사장 신능순과 인천대 학장 박재규를 파견했다. 그러나 12월 31일, 문교부가 ‘개편’한 이사진은 백 측과 문교부 추천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요구한 백인엽 완전퇴진, 이사진 전면개편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사회는 1988년 5월 10일, 백인엽 개인사무실인 「선인학원 서울연락사무소 설치 의결안」을 가결했다. 인천대 5개년계획(1988년~1992년) 수립 등 개혁을 시도했던 신능순 이사장은 ‘백파’ 직원들의



음해를 못 이겨 1988년 5월 20일 사퇴했다. 이후 백인엽은 선인학원을 상대로 1981년 재단에 기증한 돈과 부동산을 반환하라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1988.12.29)’를 제기했고 이사회는 1990년 8월 3일, 백인엽에게 7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sup>42)</sup> 그러나 이 사실은 이후 2년 동안 아무도 몰랐다.

1990년 9월 11일, 폭우로 박문여고와 선인중 사이의 축대가 무너지면서 가옥 12채를 덮쳐 2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유가족들이 백인엽 자택을 점거농성 한 지 3일 만인 11월 3일에 보상금이 지급되어 해결되었다.<sup>43)</sup> 백인엽은 여전히 확실한 교주였다.

그러나 1986년 대투쟁을 계기로 역량을 확대해간 학생운동권은 1987년 이후 전국적 추이를 따라 새로운 운동방식, 즉 대중적 조직화에 주력했다. “6월 항쟁을 경험하면서 학생운동이 대중화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공감을 얻었지요. 즉 정치투쟁을 하면서도 학생들의 실질적 생활요구, 학교나 재단 문제들을 먼저 잡고 학생대중과 함께 투쟁하자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 성숙해야 정치투쟁도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조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해마다 일차적으로는 학생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기 위해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왔지요. 그 다음에 교육환경 문제. 인천대의 최고 슬로건은 역시 재단 문제였지만 그때그때 역량이나 조건에 따라 재단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투쟁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되면 등록금

42) 장석우 편(1996, 46-51, 53-55, 60-61, 75);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58-159, 170-172, 178-179).

43) 「인천 산사태 30여 명 매몰」, 『동아일보』 1990/09/12; 「주검 6구 추가 발굴 인천 송림동 매몰참사」, 『한겨레신문』 1990/09/15; 「20여 명 때죽음 인천 송림동 축대 4백m 추가붕괴 위험」, 『한겨레신문』 1990/09/14; 「선인학원축대 매몰 유가족 보상합의 이행요구 농성」, 『한겨레신문』 1990/11/01; 「선인학원 축대붕괴사고 10억 9천만원 보상 합의」, 『한겨레신문』 1990/11/04.

과 학교 환경개선 요구에 집중하는 투쟁으로도 갔지요(배진교).”

동아리가 늘고 회원이 급증했다. 1987년에는 학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씨클인 “탈패에서 풍물패가 발전적으로 분화(권정달)”되었다. “우리문화연구회, 한국사연구회 등 새로 생긴 씨클마다 신입생이 콕콕 들어 찻지요(정수영).” 이런 조건에서 6월 항쟁을 맞이한 인천대생들에게 재투와 사회민주화운동이 결합해가면서 공감대가 넓어졌다. “86년과 87년은 운동이 더 활성화, 대중화되고 세력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재단정상화 문제와 사회민주화운동이 정확하게 결합되는 시점이기도 했고요(정수영).”

인천대생들은 이 무렵부터 ‘재투’를 ‘학자’로 불렀다.<sup>44)</sup> 박재규 학장 부임 초기인 1987년에 재투는 상대적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 대신 가두 시위 등으로 교문 밖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요(김국래).” “그렇더라도 6월 항쟁 때처럼 언제나 1부는 학교에서 재투, 2부는 독재타도 외치러 가두로 진출하는 순서를 밟았습니다. 학우들이 그렇게 해도 별 거부감이 없어진 겁니다(배진교).”

운동권의 역량이 커진 역효과도 나타났다. “1988년 총학 선거 때 운동권에서 두 팀이 나오는 통에 비운동권이 당선되었습니다(정재식).” 이때문에 당시 운동권학생들은 신능순 이사장 사퇴, 서울재단사무소 신설 등 백인엽의 학원 재장악이 가시화된 1988년에 재투가 “공백기(정수영)”였다고 기억한다. “이런 문제를 언론이나 총학이 다루지 않으면 일반 학생들은 알 길이 없죠(고도현).” 1988년 종합대 승격을 위해 학교 측이 제출한 서류도 날조한 것이었다. “인천대가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인천대

---

44) 용어 통일을 위해 이후 시기에 대해서도 ‘재투’ 용어를 쓴다. 1987년 2월 조선대 학생들이 처음 ‘학자’라고 부르면서 이후 모든 대학에서 통용되었는데, 총학생회를 민중민주(PD) 계열이 주관하는 경우 학원민주화로 부르기도 했다.

부지로 만들고, 전문대가 쓰는 선인체육관, 축구장, 공학관 이런 걸 다 인천대 건물이라고 날림 서류를 만들어서 승격 받았더니까요(정재식).”  
 “서류를 봤는데 체육관을 반 토막 내서 받은 전문대 거고, 받은 인천대 거야(안경수).”

그렇더라도 재단 문제만큼은 ‘비권’ 총학도 운동권과 공유하는 영역이었다. 총학 선거 과정에서 ‘비권’ 후보도 재단정상화 구호를 뺄 수 없었고 ‘비권’이 총학을 장악한 기간에도 재투는 일어났다. 1988년 6월 3일, 인천대에서 전주대, 우석대, 조선대 등 4개 대학생이 ‘민주사학 건설을 위한 공동결의 실천대회’를 열어 비리사학정상화를 위한 연합투쟁이 이뤄졌다.<sup>45)</sup> 6월 한 달 동안 세 차례 연합활동을 통해 사립대자율화 공동추진을 결의해서 “새로운 차원의 대학자율화운동”으로<sup>46)</sup> 평가되기도 했다.

민주화 분위기가 고양되는 와중에서 인천대 교수들도 1988년 9월 8일, 교협을 창립했다.<sup>47)</sup> 소수의 비밀적 개인 관계 외에는 학생-교수의 조직적 ‘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외적 영향력이 큰 교수들이 조직체를 만들었다는 것은 재투에서 고무적인 일이었다. 물론 교협 출범의 동력은 일차적으로 학생운동 역량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재투를 적극 지지한 교수도 이 점에 동의한다. “학생들이 계속 판을 키우고 나서주니까 교수들이 거기에 끼어들어 합세할 수 있었던 거지요. 교수들 대오가 갖춰진 것은 영향력이 큰 경제학과 장학식 교수를 영입하면서였지. 백인엽과 형, 동생 하는 관계였고 같이 골프 치고 다니다가 이쪽으로 온 분이지

45) 「학교버스 1臺 불태워」, 『동아일보』 1988/06/04. 전주대생 30여 명 민주사학 대회참석을 위한 배차 요구를 학교 측이 거부하자 버스를 불태우기도 했다.

46) 「사립대학 무엇이 문제인가(3) 학원자율화」, 『한겨레신문』 1988/06/15.

47) 「인천대 교수협회장 김주익 교수 선출」, 『동아일보』 1989/09/09.

든. 어느 날 새벽 6시인가에 이 양반 댁으로 가서 ‘연세 많을 때 후학들을 위해 학교를 정상화시켜 봅시다’, ‘그럼, 함 할께’ 이래 된 거지. 이 양반이 제대로 역할을 하셨지. 학교가 정상화되면서 총장도 하시고. 앞에 큰 대포가 있으니까 뒤에서도 대포를 쏠 수 있었던 거지요(안경수).”

인천대생들의 재투는 1989년부터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고 ‘백인엽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다시 불붙었다. 삭발투쟁이 이뤄지고 ‘후배사랑예비역’이 조직되는 등 대중적 재투가 일상화되기 시작했다. “89년도가 학생운동의 대중투쟁을 일상화했던 첫 시기일 수 있어요. 87년 이후 88년에 총학을 못 잡았기 때문에 대중투쟁을 거의 못했거든요. 89년에 운동권이 총학을 잡으면서 대중투쟁의 몸집을 많이 키워갔지요(배진교).”

싸움의 시작은 늘 등록금문제로 설정되었다. 1988년 말 새로 선출된 총학 간부 20여 명은 신입생 등록금 동결을 요구하며 12월 9일부터 학장실을 점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sup>48)</sup> “등록금 싸움부터 해서 삭발투쟁까지 하면서 89년에 다시 난리가 난 거죠(정재식).” “150명 정도가 삭발했어요(정수영).” “여학생도 있었는데 우리끼리 소림대학이라고 불렀어요(권정달).” “89년부터 다시 시작한 거죠, 관선이사 파견도 요구하고(김국래).”

1980년대 후반 들어 인천대 총학생회장은 전대협 산하 인대협(인천 지역 대학생 대표자협의회) 의장을 겸하기도 했다. 그만큼 인천대 운동권 역량이 커진 것이다. 총학생회장은 인대협과 전대협 일을 주로 하고, 부회장이 학자추 위원장을 맡으면서 학자 사업을 총괄하는 분담체제가 만들어졌다. 1989년 총학생회장 안영환도 인대협 의장이었다. 이미 1학기에 수배상태였던 그는<sup>49)</sup> 40여 학생들과 5월 30일부터 삭발을 하고 이사

48) 「인천대 학생회 간부 농성」, 『한겨레신문』 1988/12/22.

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총장실을 점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sup>50)</sup> 6월 8일에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총학, 교협, 교직원노조, 선인학원교사협의회 등 5개 단체 500여 명이 인천대 체육관에서 연합투쟁집회를 열고 백인엽 씨와 이사진 퇴진을 결의했다.<sup>51)</sup> 상설적인 조직적 연대는 아니었지만, 처음으로 연합집회를 개최한 것이다. 재투의 외연이 넓어진 것이다. 이전과의 큰 차이였다.

인천대생들은 단대별로 나눠 이사진 사퇴 독려운동도 벌여 실제로 사퇴서를 받아오기도 했다. “현 이사진으로는 안 된다 해서 단대별로 이사들 집집마다 찾아가 사퇴해라, 그래서 실제로 사퇴서를 받아오기도 했어요. 저는 그 때 학보사 기자였는데 강남에 갔었지요(김주희).” “백인엽 자택과 재단사무실이 있는 연희동과 명동에 지명수배 포스터도 붙였어요(권정달).”

그러나 백인엽은 집요했다. 1989년 말 총학 선거 때 ‘백파’ 후보가 다시 등장했다. “200여표 차이로(정성준) 운동권이 쉽지 않게 이겼다. 당시 출마했던 ‘백파’ 후보는 졸업 후 “직원으로 채용(고도현)”되었다. 1990년 재투의 시작 역시 등록금 문제였다. 총학생회장 정순구 등 간부 30여명은 1990년 2월 3일 9시 30분, 본관 2층 경리과에서 1990학년도 신입생 합격통지서와 등록금고지서 1,500장을 거둬갔다.<sup>52)</sup> 총학, 노조, 교수대표와 학교측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결렬되자 15.5% 인

49) 「시국관련 사전영장 발부자 및 수배자 85명 명단」, 『한겨레신문』 1989/05/10.

50) 「재단이사진 퇴진 촉구 인천대생 총장실 점거」, 『한겨레신문』 1989/06/01.

51) 「재단이사진 퇴진 촉구 인천대 교수협 등 5개단체」, 『한겨레신문』 1989/06/09. 안영환은 8월 19일 문익환목사 방북정당성을 주장하는 유인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11월에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인천대 총학생회장 집행유예로 풀려나」, 『한겨레신문』 1989/11/23).

52) 「인천대 학생회 간부 등록금 고지서 탈취」, 『경향신문』 1990/02/05.

상을 확정한 학교측은 등록금고지서를 신입생에게 나눠주고 총학에 납부 토록 한 정순구 등 18명을 징계하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sup>53)</sup> 결국 2월 16일, 인대협 의장으로서 이미 ‘자동’ 수배된 상태였던 총학생회장과 총무부장 고은식은 구속되었다.<sup>54)</sup> 3월 28일 오후 3시, 인천대생 500여 명은 학생회관 내 실내체육관에서 ‘등록금투쟁 완전승리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40여 명이 총장실을 검거, 밤샘농성에 들어갔다.<sup>55)</sup>

## 2) 학생운동 대중적 조직화의 성과

1991년 재투는 강경대 치사사건과 ‘분신정국’ 하에서 사회민주화운동과 더욱 밀접하게 결합되었다. “91년에는 학자투쟁과 민주화투쟁이 결합됐었죠(정성준).” 경찰의 강경진압 방침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노제 출정식을 가졌다.<sup>56)</sup> ‘분신정국’을 맞아 1학기에는 정치투쟁에, 2학기에는 학자투쟁에 무게중심이 실렸지만 의식이 고양되면서 인천대의 특수성상 이 두 가지 투쟁은 자연스럽게 같이 어우러졌다.

“1991년 3~4월에는 개강진군식 이후 학자와 정치투쟁을 쪽 겹하다가 5월 들어 분신정국이 되면서 정치투쟁으로 갔고, 하반기에는 부총학생회장 김원주 형이 교수들을 만나면서 학자투쟁이 본격화되었죠(김덕수).” “3월은 선전전하고 4월을 딱 잡았는데 강경대 정국이 오고, 분신정국이 왔지요. 저는 인천대가 학자투쟁과 정치투쟁이 동시에 가능한 학교

53) 「대학가 등록금인상 마찰 재연」, 『한겨레신문』 1990/02/10.

54) 「등록금고지서 탈취 인천대생 2명 구속」, 『동아일보』 1990/02/17.

55) 「등록금투쟁 농성 잇따라 중앙대 수원대 인천대 등」, 『한겨레신문』 1990/03/29.

56) 「시청앞 노제 충돌 예상」, 『한겨레신문』 1991/05/14.

라고 판단했어요. 학우들이 볼 때 정부, 경찰, 대학이 한 편인 거죠. 학내문제와 정치문제가 떨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론이 아니라 현실적 감각으로 체득한 거죠(배진교).” “학기가 시작되면 먼저 시작하는 게 등록금문제 등 해서 재단문제인데요. 91년에도 그렇게 시작하다가 분신정국을 맞아 판 자체가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학자투쟁과 정치투쟁 두 개가 동시에 나갔는데 그래도 학우들이 모였어요. 1,500명씩 모여 가두진출을 했거든요. 그냥 자연스러웠어요. 집회를 준비하더라도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할 정도로 많이 모였어요(정재식).”

학교측은 이에 대응하여 6월 10일 장학식 교수의 사설(‘현재단 정상화 타개방안’)을 문제 삼아 「인천대학보」 제작을 중단시켰다.<sup>57)</sup> “1학기 마지막 호부터 정간되어 학생기자들이 집단사발 항의를 했어요. 학보가 다시 발간된 것은 92년 말이나 되어서였어요(김주희).” 무려 3학기 동안이나 학보 발간이 중단된 셈이었다.

1991년 총학의 재투 방식이 보인 특징은 다양한 전술을 구사했다는 점이다. 백인엽 재복귀를 사회적으로 공론화시키면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한 것이다. 성명서와 유인물 배포, 총장 선출 및 교사 징계위 무산 투쟁 등 실력행사, 시민서명운동, 평민당사농성 등을 벌여나갔다. 교육부가 있는 종합청사 앞 원정시위도 자주 나갔다. 1991년 7월 15일, 교수와 교사들이 「범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범선추)를 결성하고 「인천대학교 재단정상화 추진위원회」, 「선인학원 재단정상화 교사추진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범선추」는 비리백서를 출간하고 교육부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 외중에 재단은 악수를 거듭하고 있었다. 1학기 교수 임용에서는

57) 「학보 발행중단 등 수난」, 『한겨레신문』 1991/10/08.

안기부 국장 출신을 정외과 교수로 임용했다. 정외과 학생 160명은 “백인엽씨가 학원의 실권을 재장악하려는 의도”라면서 전원 수강신청을 거부하고 8월 29일부터 학장실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총학 간부 등 150여명도 총장실과 4개 처장실을 점거하고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였다. 갑자기 교육부가 9월 13일에서 9월 15일까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9월 16일로 예정된 교육부 국정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임기응변책이었다. 여전히 교육부는 인천대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언론도 국정감사가 없었다면 몇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할 정도였다.<sup>58)</sup>

교육부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정상화추진위’ 교수들은 1990년 송림동 매물사고 당시 백씨가 결정한 24억 원 배상금 중 13억 원을 재단 산하 선인고, 인화여고, 선화여상 등의 교비에서 변칙 지출했다고 주장했다.<sup>59)</sup> 물론 국정조사 대비비용에 불과했던 교육부 실태조사는 재투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 무렵 총학은 등록금 인상률 12.3%에 합의할 때 재단이 학교시설 투자를 과감히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sup>60)</sup> 8월 29일부터 총장실과 4개 처장실을 점거 농성 중이었다. 박재규 총장 등과 면담 결과 1991년도 등록금 인상분 12억 9천만 원 중 남은 7억 7천만 원을 1992년도 예산 편성시 학교운영자금으로 반영하고 도서관 등 신축건물공사비는 재단에서 부담하기로 하는 등 3개항에 합의하고 34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sup>61)</sup>

58) 「안기부 출신 교수채용 물의」, 『한겨레신문』 1991/09/01; 「선인학원 ‘비리조사’」, 『동아일보』 1991/09/13; 「‘뒷북행정’과 ‘물監査」, 『경향신문』 1991/09/15.

59) 「선인학원 분규 10년만에 재연」, 『한겨레신문』 1991/09/14.

60) 「안기부출신 교수 임용이 발단」, 『한겨레신문』 1991/09/13.



1991년 2학기 들어 백 측의 대응이 급해지기 시작했다. 재단은 총장에게 교협 핵심교수들 징계를 요구했다. 박재규 총장이 징계 상신을 거부하자 ‘백파’ 교직원들은 총장탄핵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다음 해 2월 말로 예정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박 총장은 결국 12월 13일, 사퇴했다.<sup>62)</sup> 12월 20일에는 교협 장석우 교수가 파면되었다.<sup>63)</sup> 같은 날 비교협측 교수 100여 명이 장윤익 부총장을 선출하려 했지만 100여 명 학생들이 “재단정상화” 구호를 외치며 투표를 지지했다. 그러나 93명 교수들의 서명으로 장윤식 부총장을 총장으로 ‘선출’했고 12월 23일, 이사회는 장 교수를 총장에 임명했다. 1992년 1월 14일에는 이세영, 장재선 교사를 징계위에 회부하였다. 교사들과 인천대생들이 징계위를 저지시켰지만 재단은 다시 징계위를 열어 2월 1일자로 파면했다.<sup>64)</sup>

1987년 이후 동아리가 아니라 대중 속으로, 과로 내려가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되었지만 학과마다 성과의 편차가 컸다. 이 때문에 전대협도 이 노선을 계속 강조했다. “89년, 90년경에 전대협에서 과학생회 건설강화 노선이 학생운동 전체에 큰 영향을 줬지요(김덕수).” 대중화 노선은 인천대의 특수성상 적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당시 인천대 운동권에게 대중화 노선은 재투 기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였다. 현실적으로 운동권이 총학을 장악했지만, 학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총대의원회에는 ‘백파’ 학생들이 많아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61) 「인천대 정상수업」, 『동아일보』 1991/10/02.

62) 장석우 편(1996, 76-81, 103-105);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84-185).

63) 「인천대 교수협 회장 파면 선인학원, 학생 등 선동 이유」, 『한겨레신문』 1991/12/22.

64) 「인천대 학생 50명 총장실폐쇄 농성」, 『경향신문』 1992/01/14; 「인천 선화여중교사 농성 징계철회·정상화 등 요구」, 『한겨레신문』 1992/01/16; 「인천대 분규 갈수록 악화」, 『동아일보』 1992/01/16; 「선인학원 교사징계위 무산」, 『한겨레신문』 1992/01/17.

실제로 1991년 학생운동권의 핵심들은 당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볼 형편이 아니었다. “91년도는 백측과 저희 모두 재반격을 준비하는 해였습니다. 90년도에 징역 갔다 오고 나니 전에 일부 교수님들과 맺었던 관계도 단절되었고, 91년에 일부 복원이 됐지만요. 당시 총대의원회에는 백파 친구들이 셋거든요. 총학 견제세력이 되어 예산 문제로 괴롭힘을 많이 줬지요. 그래서 91년도에 학생회관에 포진했던 서클들은 대부분 축소하면서 다 과로 갔지요. 공대가 특히 취약했는데 예비역들이 많아 후배들 기도 못 뻗거든요.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을 취약한 곳으로, 과로 보내서 사업을 한 겁니다(배진교).” “그때는 과학생회 즉 학회장들이 다 일반학생이었어요. 대부분 예비역들이었고. 그러다보니 백파 논리, 운동권 비판논리가 세를 형성해서 총학 견제세력이 된 거죠. 대중화 운동노선으로 과로 가자는 것은 현실적이고 절박한 문제였죠(정수영).”

인천대 학생운동권이 대중적 조직화에 주력한 결과, 운동권 스스로 1991년 들어 인천대가 달라졌다고 자평할 만큼 가시적 성과를 드러냈다. 특히 이제까지 ‘백파’에 휩쓸리던 축구부, 예체능 쪽 학생들까지 달라지는 큰 변화를 보였다.

“91년에 인천대가 많이 달라졌어요. 90년대 들어 과학생회로, 과로 들어가자 하면서 대중조직을 매우 중시했지요. 제가 91년도 공대 학생회장이었는데 90학번부터 공대를 변화시키자, 소모임들을 만들어 1학년부터 키워내자. 운동의 대중화 시기였지요. 체육과에도 좋은 친구들이 나와 90년 총학 체육부장도 하고, 91년에는 그런 친구들이 과학생회장도 맡았지요(정성준).” “저도 체육과 친구들이 하던 예체능대 학생회장을 91년에 했거든요. 체육과, 경지과(경기지도학과) 친구가 나오면 미술학과는 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84학번 체육과 백파 친구들과 친했어요. 저는 운동권도 아니어서 나를 시키면 잘 따라 오겠거니 하고 밀어 준 거

죠. 경지와 친구가 출마하려 하자, 체육과 친구들이 ‘너 나오지 마. 이번에는 미술학과에서 해야 돼.’ 그래서 제가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갈등이 많았죠(고도현).” “92년도에도 우리가 지지 않았습디다. 이전에 무조건 백파에 동원되었던 예체능대에서 이겼어요. 그만큼 학생들 분위기가 달라진 거죠(정성준).” “그 후에도 분위기는 비슷했어요. 경지와 친구가 학생회장을 해도 최소한 중립이거나 저쪽 편은 들지 않았어요(정재식).”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크게 마련인 복학생들의 의식도 큰 변화를 보였다. 1989년 2학기에도 잠시 나타났던 후배사랑예비역이 1991년 들어 거교적으로 조직화되면서 큰 우군이 된 것이다. “91년 상황은 86, 87, 88학번들이 군대 갔다가 복학하는 시기에요. 기존에 씨클이나 단대에서 활동했던 친구들이 모여 후배사랑예비역 모임을 만든 거죠. 그래서 백파 쪽 입장에 기울어질 수 있는 예비역 흐름을 일정 정도 막아낸 거죠(배진교).” “제가 91년에 징역 갔다 나와 뜻 맞는 친구들끼리 후배사랑예비역을 만들었어요. 근데 91년이 분신정국이잖아요. 격렬한 정치투쟁에 천명 이상이 가두진출을 했죠. 후배들 보호해야 한다면서 후배사랑예비역 200여명이 예비군복 입고 선두에서 최루탄 무릅쓰고 시위를 이끌었어요(정수영).”

1991년 상황은 운동이 대중화되면서 교문 밖에 있던 시간이 많았던 점에서 1987년과 비슷했다. 그러나 차이도 많았다. “87년 경우는 이제 막 형성되는 시기였고, 91년은 인천대 학생운동이 정점에 달한 시기였지요(김국래).” 즉 이전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사회민주화운동 동력이 강해진 것이지 인천대에서 재투는 ‘상수’였다. “군대 갔다 왔는데 ‘아직도?’ 하면서도 인천대생들에게 재투는 일상생활이 되어 갔죠(김국래).” “솔직히 저 자신도 복학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학내문제는 여전히 심각

한 상태였어요(정성준).” “총학이 데모 안 하고 수업거부 안 하면, 노는 걸로 취급받을 정도였어요. 한 학기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한 번쯤은 거부해야 하고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총장실 점거해야 했어요(배진교).” 그만큼 인천대 학내상황은 최악이었다. “등록금 싸움에서 시작한 재투는 늘 계속 가는 거지요(정재식).” “학원문제는 언제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터집니다. 강의실, 복지시설 할 것 없이 고등학교만도 못했으니까. 다들 응어리가 맺혀 있거든요. 정치·사회적 논의가 부상하면 그쪽으로 쏠리면서도 이 문제는 늘 남아 있는 겁니다(고도현).”

### 3) 학생운동권과 교수들, '제한적' 연대 속의 역할 분담

1991년 재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이 교수들에게 연대를 적극 제안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교수들은 학생들과 연대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부정적 입장을 보인 가운데 다른 방식을 모색했다. 실제로 양 측의 입장과 재투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크게 달랐다.

한 사례가 이를 잘 드러내 준다. 1991년 4월 20일, 교협은 “백인업은 현재 학교법인의 임원이 아니므로 법인 운영에 있어 법률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윤형섭 교육부장관 회신을 받았다. 또 교협은 정부와 국민, 인천시민에게 공개호소하는 방식을 택하고 “교수들이 앞장 선다”는 원칙에 따라 학생 참여를 막기 위해 1학기가 종강되는 1991년 6월 19일, 『인천일보』 1면 광고로 「선인학원 이사장 및 임원 여러분께 드리는 공개질의」를 알렸다.<sup>65)</sup> 즉 교협은 학생들이 참여하면 정부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판단하고 학생들과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

65) 장석우 편(1996, 433-436, 81-85).

다. 실제로 교육부 회신의 내용이나 사실 자체를 당시 운동권 지도부 학생들은 전혀 몰랐다. 교협만 이 회신을 의미있게 생각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도 교수들이 학생들과 연대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다는 기억을 공유하고 있다. “저희들이 교협에 공개적으로 연대를 요청했지만, 교수사회는 공식적으로 학생들과 입장과 행동을 통일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상층이나 바깥을 향해 계속 문제를 던지는 방식으로 갔고, 학생들은 독자적으로 대중투쟁 방식의 학자를 진행하고 있었죠(배진교).”

또 교수들에게 학생운동에 대한 색깔론적 시각과, 교수들이 학생들을 선동한다면서 재단이 탄압을 가할 수 있는 빌미를 쥐서는 안 된다는 전술적 입장이 섞여 있었다고 기억하기도 한다. “교수들은 학생들을 끌어들이면 학교자주화 운동이 무슨 ‘해방대학’ 만드는 걸로 오해받거나 탄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스스로 학생들과 일정 정도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들은 사실 그 때 재단이 쉽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상황 인식에서 교수님들과는 영 소통이 안 되었어요. 저희가 92년도에 교수, 학생, 직원이 함께 논의하는 대발위(대학발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지만 결국 그 해에는 못 만들었어요. 몇몇 교수들과 비공식 라인으로만 얘기되었을 뿐이지(권정달).”

당시 학생들은 재투를 교수나 시민운동 중심으로 이해하거나 1990년대에만 초점을 두는 일부 교수들의 ‘자기중심적’ 인식을 강하게 비판한다. “장석우 교수가 91년 12월에 해임되고, 교협 사무실에서 혼자 농성하신 때문인지 교수님들은 ‘교수들이 나서서 시민사회로 판을 키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교수들이 먼저 나선 건 아니지요. 학생들은 늘 준비되어 있었고 학자 투쟁은 매년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권정달).” “학생들은 등록금 싸움도 하고, 밑에서 요구하는 싸움도 하면서 계속 가고 있

었어요. 교수님이 처음 농성 형태로 91년 말에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물 밑 형태였고요(정재식).” “사실대로 말하면 학생들이 계속 싸우니까 바보 같은 재단은 현상만 보고 배후에 교수가 있다, 핵심에 장석우 교수가 있다고 본 거지요. 그래서 장 교수를 친 것이고요. 그러고 나니까 ‘아이고, 당했네’ 하면서 교수님들이 왁 나선 거지요(권정달).” “정확한 표현이네요(정수영).”

이에 반해 관계기관들과 접촉하고 외부환경 조성에 주력한 교수들로서는 학생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었다. “학생들이 계속 판을 키웠고 교수가 끼어든 건데 교수들 방식은 바깥에 있었지. 임무를 나눈 거라고 봐야지요. 내가 그 때 국정원 육 국장을 알아서 동부경찰서장이거나 서부경찰서장이 나를 도와줬다고. 안기부 인천지부장 파위가 제일 서서 이 친구가 나서지 않게 해야 되거든. 또 하나 중요한 건 교수와 학생이 연대를 해도 안 한 것처럼 해야 하거든. 학생과 만났다고 알려지는 그 순간 그 교수는 해임이야. 교수 스스로가 살아야 일을 할 것 아니요. 그래서 교수와 학생 관계를 공식적으로는 안 만들고, 극비리에 개인 멘토로 만났지. 예를 들어 권정달이나 배진교 구청장은 나하고, 민용규 교수와 누구. 정해진 멤버끼리만 만났지, 다른 사람은 안 만나요. 못 만난다고도 할 수 있지. 그렇게 해서 의견을 나누고(안경수).”

1991년 재투를 총괄한 배진교도 이 의견에 일정하게 동의한다. “교협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지요. 그런 상황에서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자칫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지면 탄압의 빌미가 될 뿐만 아니라, 교수 개개인들이 각개격파 당하면서 실제 역량을 모으기가 어려웠겠지요. 그래서 교수님 몇 분만, 학생도 극소수만 만난 거지요. 이런 정황을 교협의 다른 교수님들은 아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대부분 교수들은 지금도 당시 걸음으로 본

대로 학자 투쟁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간에는 물밑에서 의견교환을 하는 수준에서 서로간에 방향을 공유하는 수준에 있었던 게 91년이었죠(배진교).”

“학생지도는 나나 민용규 교수 같은 사람들이 한 거지. 사실 다른 교수들은 몰라요(안경수).” “만나도 비합적으로 만났죠. 학교 밖에서(정성준).” “사실 91년 초까지는 교수님들과 할 얘기가 없었어요. 91년 말부터 조금씩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다만 교수님들이 부담스러워 한 측면이 있었고, 저희들도 교수님들과 그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해 본 적이 없어서 얘기를 나눠도 어느 정도로 믿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죠. 워낙 백인엽 쫂나폴들이 많았고요. 91년 말은 그런 과도기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김덕수).”

교협의 핵심교수들은 이 무렵 재단 인수자를 찾는 방안을 많이 생각했다. “학생들은 매일 데모했지만, 사람을 접촉하고 구체적 대안은 결국 교수들이 만들어야 하니까. 나중에 중앙대를 인수한 사람을 장학식 교수가 먼저 접촉했어요. 부동산재벌 제일교포. 장 교수가 인수자를 열심히 찾아 다녔지. 그런데 백인엽이 야쿠자 보낸다고 협박해서 못 한 거야. 그 때 청와대 김학준 씨를 만났더니 백인엽이 ‘내 돈 안 먹은 놈이 어디 있냐’고 큰소리치고 다녔답니다. 결국 새 재단 찾는 일은 무산됐지만,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안경수).” 이런 상황을 배진교도 당시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 “91년은 재단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투쟁을 할 시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수님들 중에는 재단의 새 주인을 찾는데 관심이 많았고요. 부동산 재벌인데, 재단을 넘기려는 논의가 있구나 하는 사실은 91년도에 저희들도 알고 있었지만 오픈된 얘기는 아니었죠(배진교).”

#### 4) 사회민주화운동과 일체화되고 시민운동과 연대한 재단투쟁

##### (1) ‘순조롭지만’ 격렬했던 92년 재단투쟁과 연대투쟁

인천대에는 교협 회장 파면과 어우러져 1991년 12월 18일부터 교수 등 50명이 해를 넘겨 철야농성이 벌어지고 있었다.<sup>66)</sup> 1992년 들어 인천대생들은 재투에 집중하면서도 5월 정치투쟁도 병행했다. 5월 22일 오후 6시경, 인하대, 성심여대생들과 함께 2천여 명이 제물포역 앞에서 ‘민자당 해체’와 ‘민주정부수립’을 주장하면서 2시간 동안 화염병 100여 개를 던지는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sup>67)</sup> 25일 오후 7시 반에도 인하대생과 함께 500여 명이 부평역 앞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조기선거’를 요구하면서 가두서명운동을 벌여 두 학교 학생 88명이 연행되었는데 다음 날 이종만(산공 4) 등 인천대생 4명이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sup>68)</sup>

“92년도에 우리들이 농성할 때 딱 한 정당만 방문하지 않았어요. 학자투쟁 하면서 정치투쟁으로 거리에 나갈 때 2, 3천명이 ‘해체 민자당’ 구호를 외치다가 학교 문제를 얘기할 때는 ‘백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거든요. 92년도는 이 과정에서 학우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각성되어 간, 이전에 조금씩 나아가던 것이 광폭적으로 진행된 시기였습니다(권정달).”

당시 총학 간부학생들은 1991년 재투의 미진한 점을 찾아 1992년 재투의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기억한다. 실제로 대선이 있던 1992년에 전국의 학생운동은 상대적 소강상태였지만, 인천대만은 예외였다. 대의원

66) 「인천대 분규 갈수록 악화」, 『동아일보』 1992/01/16.

67) 「인천 대학생 2천명 반민자당 가두시위」, 『동아일보』 1992/05/23.

68) 「長선거요구 가두서명 인천, 대학생 88명 연행」, 『경향신문』 1992/06/26; 「단체장 선거 서명자 영장」, 『한겨레신문』 1992/06/27.



중에 여전히 백파 학생들이 적지 않았지만 1991년의 투쟁 동력과 분위기를 안고 대중적으로 재투를 이끌어갔다. 모든 직원을 백파로 교체한 학생처와 계속 부딪히는 가운데 계속 집회를 열고 시민연대를 추진했다.

“91년 학자 분위기가 좋아 신입생 수련회 때는 분위기가 아주 좋았어요. 그러나 92년 1학기 때에는 대의원에 백파가 많았어요. 2학기 때 바뀌었지만. 그런데 백파 대의원들이 방을 몇 개 더 덜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꺼져라, 싫으면 가라. 여관방 얻어라.’ 강경하게 대했지요. OT를 갔는데 학생처가 지원을 안 해요. ‘붙잡아 와라.’ 총학 옆 의무실에서 담판을 지었어요. ‘처장님, 지원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저하고 밤 새실 겁니까?’ 그렇게 했어요(정성준).” “배진교 형이 안경수 교수에게, 김원주 부총이 민용규 교수에게 정보수집 하고, 또 학생과 선배에게 얻은 정보들을 취합해서 총학 입장을 정리했지요. 들은 정보가 다 달랐어요. 1991년 말부터 장석우 교수가 농성을 시작했고 그 전에 ‘범선추’가 구성된 상황이었어서 피크로 설정한 92년 싸움은 판을 크게 벌여야 한다고 생각했죠. 병원에서 빼가고, 어디에서 빼가고 재단이 빼가기만 한다. 학내 문제는 교육시설 문제로 접근하잖아요. 그런 게 신입생들에게 공감대를 넓혀줬지요. 매년 같은 매뉴얼이지만 학자추가 91년 겨울 내내 등록금 협상을 하고 총학선포대회를 가집니다. 인천대는 총학선포대회, 출정식 때 2,000~3,000명이 모였죠. 92년도 시작이 그랬습니다(권정달).”

인천시민들도 1991년 말부터 선인학원 문제를 지역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인천대생들의 끈질긴 재투와 교수들의 대외활동 성과라고 할 수 있다. 1992년 1월 20일, 인천중앙감리교회에서 「선인학원사태를 우려하는 인천시민의 모임 준비위원회」[시민의 모임(준)]가 결성되었고 2월 15일, 인천대에서 「선인학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인천시민 10만 명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졌다. 두 달 만에 서명자가 7만 명에 이르렀다.<sup>69)</sup>

“그 때는 수업거부를 할 때니까 학우들이 인천대공원이든 교회든 성당이든 시민단체든 사람 모이는 곳이면 무조건 조 짜서 서명 받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짧은 기간에 10만 명 서명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권정달).”

총학은 1992년 2월 21일 졸업식에서 ‘백파’ 장운익 총장의 입장을 막고, ‘인천대학교 6천 학우가 200만 인천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배포했다. 주동 학생들 징계가 추진되자 학생처장실과 기획처장실을 폐쇄하고 집기를 들어냈다. 3월 3일 입학식에서는 “보직교수 총사퇴”, “재단 정상화” 등을 외쳤다. “심창유 이사장은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학생처 직원들을 백파로 바꿔요(권정달).” 그래서 3월 18일 ‘재단 정상화를 위한 개강총회’, 26일 「선인재단 정상화를 위한 4만 선인가족 결의대회」 후 이사장실, 총장실, 교무처장실, 각 단대학장실과 교학과를 폐쇄하는 점거 및 농성 투쟁을 확대했다.<sup>70)</sup> “학우들의 폭넓은 지지 속에서 이뤄졌지요. 이전 총학이 잘 다진 결과였지요(권정달).”

이 와중에 교육부는 기름에 불을 질렀다. 4월 8일, 장석우 교수 해임을 승인한<sup>71)</sup> 것이다. 장 교수는 4월 13일부터 시한부 농성을 시작했다.<sup>72)</sup> “시민들이 교육부에 선인학원 문제를 제기하자 우리들은 종합청사 옆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올라가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인천시청에도 달려갔고요. 그런데 재단이나 학교당국은 반응이 없어요(권정달).” 그

---

69) 장석우 편(1996, 122-127, 133-135).

70) 「선인학원 학생·교원 2천 명 시위」, 『한겨레신문』 1992/03/27; 「교사 대학생 등 2천 명 학원정상화 요구 농성 선인학원」, 『동아일보』 1992/03/27; 「인천대생 수업 거부 농성」, 『한겨레신문』 1992/04/14; 「인천대 총학생회 농성 이사진 전원퇴진 요구」, 『동아일보』 1992/04/14.

71) 「교육부, 인천대 장석우 교수 해임 결정 시민단체 “정상화 역행” 반발」, 『한겨레신문』 1992/04/10.

72)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92-193); 장석우 편(1996, 139-142).

래서 이날, 총학 중심으로 300여 명이 총장실과 7개 단대학장실을 점거,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사진 전원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 장 교수 파면 철회, 장 총장 및 백인엽 추종교수 퇴진, 일방적 등록금인상(19.2%) 철회 등을 요구하며 수업거부에 들어갔다. 19개 재야단체도 4월 18일 오후 1시, 인천대 운동장에서 ‘선인학원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계획했다. 언론은 이 집회 계획으로 인천대 사태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sup>73)</sup> 선인학원 문제가 전국적 문제로 사회화된 것이다. 15일에는 교협 교수 40명도 이사진 퇴진, 관선이사 파견 등을 촉구했다.<sup>74)</sup>

당시 총학생회장은 “이렇게 싸움이 치열하게 계속 진행되고 분위기가 일대 전환되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합세하게 되었다(정성준)”고 정리한다. 1992년에 이르면 관선이사 파견 촉구 주장은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일부 교수들이 구상하던 재단 교체안이 더 이상 구체성을 갖지 못하는 때이기도 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거센 “반발”에 시민들까지 동조하는 움직임에 즈음하여 교육부는 4월 17일부터 25일까지 선인학원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천대생들은 교비 일부가 수물보상비에 유용되고 백씨 모친 동상 건립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성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sup>75)</sup>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미봉책에 그칠 우려가 큰 교육부 압박용이었다.

3월 26일부터 점거농성에 들어간 인천대생들은 4월 13일부터 수업거부와 함께 ‘전교생 사퇴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4월 17일부터 실시 중인

73) 「인천대생 수업 거부 농성」, 『한겨레신문』 1992/04/14; 「인천대 총학생회 농성 이사진 전원 퇴진 요구」, 『동아일보』 1992/04/14.

74) 「인천대 교수 재단퇴진 요구」, 『한겨레신문』 1992/04/16.

75) 「분규 인천대 감사 교육부」, 『동아일보』 1992/04/17; 「교육부 인천대 종합감사」, 『한겨레신문』 1992/04/17.

교육부감사가 여론 무마용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4월 20일부터는 오전 수업도 전면거부했다. 이미 일주일 사이에 전체 6천여 학생의 과반수가 단 대학생회에 자퇴서를 제출했다.<sup>76)</sup> 삭발투쟁이 다시 병행되었다. 4월 15일, 800여 학생들은 백인엽 자택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sup>77)</sup> 4월 16일에는 400여 학생들이 강의실 책상을 들어내 운동장에 야적했다. “학우들이 수업거부 의지를 확실히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각 과별로 줄서서 의자를 다 들고 나왔어요. 총학이 추동한 게 아니라 이전의 총학이 조금씩 학우들의 삶과 생활과 학문과 투쟁이 일체되는 운동을 계속 해 온 결과예요. 장관이었지요(권정달).” “여학생도 3명이나 삭발했지요(김국래)” “저는 미대 4학년이고 취업준비를 해야 해서 도저히 삭발은 못하겠더라고요. 대신 혈서를 썼죠(고도현).”

교육부의 선인학원 종합감사가 시작된 지 하루 후인 4월 18일, 민주광장에서는 제3자가 보기엔 비정상적 분위기도 연출되었다. 그러나 교수 조차 이런 상황을 이해할 정도였다. “방해하는 놈이 엄청 많았으니까(안경수).” “그 때는 정상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죠. 장운익 총장실을 급습해서 민주광장으로 불러왔는데 집회 후 장 총장을 여러 명이 번쩍 들어 교문 밖에 버리고 들어와 교문을 잠궈 버렸어요. 외부 사람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인데 인천대 재투는 웬만큼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요(김국래).” “백과 직원들 열 몇 명을 잡아 학교를 한 바퀴 돌아서 교문 밖에 버리기도 했어요. 다시는 학교 들어오지 말라고(정재식).” “교정에서 총학 간부들이 백과 교수를 가리켜 ‘백과다!’ 외치면 학우들이 그 교수를 교문 밖

76) 「인천대생 집단자퇴 결의」, 『한겨레신문』 1992/04/15; 「인천대생 3천여명 자퇴서」, 『한겨레신문』 1992/04/25.

77) 「선인학원 분규 확산」, 『한겨레신문』 1992/04/16.

에 내다 버려요(김덕수).” “투쟁 과정에서 학우들이 백과 교수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절절하게 느끼니까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진 겁니다(권정달).” “체포조가 만들어져 매일 그랬어요(정성준).”

4월 18일, 인천 시민과 선인학원 산하 교수, 교사, 학생 등 2천여명은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당국이 방관자 자세를 버리고 항구적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 감사가 학원정상화를 위한 감사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포했다.<sup>78)</sup>

1992년 4월을 계기로 인천대 학생운동의 재투는 시민운동과의 연대가 확고해지고 교수, 교사들과의 연합도 강해지면서 사회민주화운동과 일체화되어 갔다. 선인학원 정상화 문제는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서 전국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 (2) 시민의 지지 속에 확정된 시립대안

그러나 재단은 공세적으로 대응했다. 장학식 교수 징계 결정(4.16)에 이어 총학 간부학생들 징계에 나섰다. 수업거부가 한 달 이상 지속되던 4월 30일 오전 10시 30분경, 총학 간부들이 전문대 본관 재단감사실 창틀을 부수고 들어가 상임감사 홍낙선 등 7명을 쫓아내는 강경투쟁에 나서자 대학측은 총학생회장 정성준, 부총학생회장 문종권, 공대와 인문대 학생회장 심영섭과 안재형, 1991년 부총학생회장 김원주 등 5명을 제적하고, 5월 8일에는 정성준 등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동부경찰서

78) 「인천대 비리 철저히 조사」, 『한겨레신문』 1992/04/19; 「인천 시민 학생 2천여명 선인학원 정상화 결의」, 『동아일보』 1992/04/19; 장석우 편(1996, 144-146, 148-149);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2010, 193).

에 고발했다.<sup>79)</sup>

재단이 교수와 교사 3명을 파면하고 총학 간부 5명을 제적한 후 인천대는 5월 말까지 수업이 이뤄질 수 없었다.<sup>80)</sup> “백인엽이 ‘내 돈 안 먹은 놈이 어디 있냐’고 큰 소리 칠 만큼 각처의 비호세력들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지요(안경수).” 그런데 재투가 시민운동 차원으로 확산되고 교육부 종합감사 마감 하루 전인 4월 24일, 이사회가 백인엽에게 78억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문서가 「시민의 모임(준)」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되었다.<sup>81)</sup>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뒤였다. 이 내용은 다음날 각 신문에 일제히 보도되었다.<sup>82)</sup> 백인엽이 물러나야 하는 중요한 근거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것이다. 배진교는 이 폭로가 “92년 들어 지역사회가 백인엽을 더 이상 들어올 수 없게 만든 결정적 단서”로 작용했다고 기억한다.

이 자료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각자 찾아낸 것이다. “89년에 이사퇴진투쟁으로 사퇴서 받으러 다닐 때, 저희들이 재단사무실 금고를 깬어요. 그런데 달랑 통장 2개 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서류를 치운 거죠. 그동안 재단 서류를 한 번도 볼 수 없었잖아요. 재단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무렵 어디 초등학교와 어느 중학교에 재단관련 서류가 보관되어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선인학

---

79) 「인천대 학생간부 5명 제적」, 『한겨레신문』 1992/05/01; 「인천대생 12명 고발」, 『한겨레신문』 1992/05/09.

80) 「선인학원 교수 교사 농성 돌입」, 『한겨레신문』 1992/05/26.

81) 「백인엽씨에 50억 지급 확인」, 『한겨레신문』 1992/04/30. 「시민의 모임(준)」이 폭로한 「선인학원 기금 78억원이 백인엽에 건네진 경위 및 선인학원 국가헌납 과정에 관한 진상 보고서」 내용 중, 「재단 이사회와 백인엽의 유착 관계를 단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78억 소송 사건 진상」 전문은 장석우 편(1996, 62-63) 참조.

82) 「백인엽 씨 헌납재산 돌려받은 배경 백씨-재단 ‘밀착’ 가능성」, 『한겨레신문』 1992/04/25; 「백인엽 씨 헌납한 재단기금 선인학원서 78억 되돌려줘」, 『한겨레신문』 1992/04/25; 「백인엽 씨 선인학원 헌납 백1억 “재단과 합의” 78억 되받아」, 『동아일보』 1992/04/25.

원 내 학교에 전교조가 88년에 조직되었는데 그 선생님들이 정보를 준 거지요. 그 2개 학교 보관창고를 찢죠. 하여튼 그래서 세 군데에서 갖고 나온 서류가 몇 포대나 됐어요. 그 중학교를 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지휘 봉으로 장소를 가리키더라구요. 그 분 아니었으면 백인엽이 78억원을 횡령한 서류는 못 찾았을지도 몰라요. 이 자료가 92년도에 결정적 역할을 한 거지요(배진교).” “목숨 내놓고 하는데 무서울 것이 없는 교수들이 서울 연락사무소를 급습하여 끄집어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평위’에 요청해서 시민단체 양반들이 협조를 해 준 거지(안경수).”<sup>83)</sup>

실제로 이 폭로 40여 일 후 인천지검은 재단이 교육부 종합감사 직전인 1992년 4월 16일까지 4차례에 걸쳐 64억 원을 불법지출한 혐의로 백인엽 출국금지를 요청했다.<sup>84)</sup> 교육부도 감사 당시, 백인엽에게 78억 원을 반환하기로 합의했고 1992년 말까지 나머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육부는 이전과 다른 상황을 맞게 되어야 이사진 교체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구나 5월 14일에는 1990년 매몰사망 처리 보상금 23억 원 중 12억 원을 산하 학교 교비에서 불법지출한 사실에 대해 1991년 9월 실태조사 때 시정 지시를 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뒤늦게서야 밝혔다.<sup>85)</sup>

교육부는 “상당한 고심” 때문인지 종합감사 후 20여 일이 지난 5월 15일에야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돈을 환수하면” 교육부가 “현재단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시민

83) 반면에 장석우 편(1996, 149)에는 「시민의 모임」이 이 ‘결정적 자료’를 발굴했다고 서술되어 있다.

84) 「인천대 설립 백인엽씨 출국금지 요청 재단재산 불법지출」, 『동아일보』 1993/06/08.

85) 「백인엽씨에 지급한 62억 환수 않을 땐 인천대 관선이사 파견 검토」, 『한겨레신문』 1992/05/15.

의 모임)은 “조건부 관선이사 파견은 있을 수 없다”고<sup>86)</sup> 격렬하게 비난했다. 교육부의 미봉책을 우려한 ‘범선주’ 교수와 교사 250명은 5월 25일, 이사진과 백인엽 사법조치, 선인학원 국공립화를 요구하면서 재단사무실에서 무기한 밤샘농성에 돌입했다.<sup>87)</sup>

결국 교육부는 6월 10일에야 관선이사 9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sup>88)</sup> 총학은 6월 15일 오후 2시, 비상총회를 열고 4월 20일부터 시작된 전면 수업거부를 58일 만에 중단하고 6월 16일부터 학원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 오전수업만 하기로 결의했다.<sup>89)</sup> 그러나 수업일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방학 내내 강의를 진행되었다. “86년 때처럼 수업을 해 본 적이 없어 1학년 92학번들한테 항상 미안했어요(정성준).”

1992년 1학기 인천대생들의 재투는 교수, 교사, 시민들과 연대하면서 전국적으로 학교문제를 알리면서 강력한 힘을 받을 수 있었다. “시민사회도 교육부와 계속 투쟁해 줬지요. 농성장에 시민사회단체도 방문하시고 민주당도 오셨어요. 인천연합도, 목사님, 신부님들도, 각 학교 선생님들도, 그리고 전대협 총회를 통해 재단 문제를 밖으로 널리 알렸어요(권정달).” “연대투쟁이 92년에 제대로 꾸려진 거지요. 교수님들도 적극 나섰고 2학기 때에는 교협을 통해 연대하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드러내 놓고 만난 것은 아니고 비밀리에 만났어요. 재단 산하 학교 선생님들과도 같이 결합하면서 농성을 했고요(정성준).”

86) 「새국면 맞은 인천대 사태 교육부 ‘최악상황’ 판단 강경조치」, 『한겨레신문』 1992/05/16.

87) 「선인학원 교수 교사 농성 돌입. 재단이사진 승인취소·고발 등 촉구」, 『한겨레신문』 1992/05/26; 「선인학원 교수 교사 농성 돌입」, 『동아일보』 1992/05/26.

88) 「선인학원 관선이사 파견」, 『한겨레신문』 1992/06/11; 「선인학원 관선이사 파견」, 『경향신문』 1992/06/11; 「인천대 관선이사 파견」, 『동아일보』 1992/06/11.

89) 「인천대 수업 부분재개 전면중단 58일 만에」, 『한겨레신문』 1992/06/16; 「인천대 수업재개 중단 58일 만에」, 『동아일보』 1992/06/16.



6월 11일에 열린 첫 관선이사회는 백씨에게 78억 원을 반환하기로 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반환요구소송 준비에 들어가는 등 학원정상화대책을 마련했다.<sup>90)</sup> 같은 날, 새 이사진은 현 교무위원들을 전원 해임하고 백인엽과의 연결고리 단절 조치를 취하라는 교협의 성명서가 발표되었다.<sup>91)</sup> 그러나 장윤익 총장은 관선이사회의 총장사퇴 결정(7.22)을 정면 거부했다.<sup>92)</sup> ‘백파’의 반발이었지만, 결국 이사회는 7월 28일, 장총장 직위해제를 결정했다.<sup>93)</sup> 1993년 2월 26일, 이사회는 총장직무대행에 장학식 교수를 임명했다.<sup>94)</sup>

인천대 학생운동권은 1992년 11월 들어 1993년 총학 선거준비와 전술설정에 집중하여 “정말 혜택 받은 학생회”인 1993년도 총학을 출범시켰다. “탄력이 붙었잖아요. 지역사회에서도 재단 문제가 핵심이슈로 떠올라 지방선거 활용 전술도 제기되었어요. 92년 겨울에 다시 등록금 투쟁을 준비합니다. 전년과 같은 수순이지요. 출범식 하고, 4·19 때 마라톤대회 하고, 6월에는 6월 항쟁 기념 이런 과정이 진행되면서 학생들 분위기와 교수님들 움직임이 결합하고 범시민적 사회문제가 되면서 93년도에 최기선 시장과 실마리를 풀어갔지요.(권정달).”

“93년도 총학생회는 91년, 92년을 거치면서 누적된 성과의 혜택을 정말 많이 받은 학생회였어요. 선거에서 비권과 붙었는데 유례 없는 표차로 이겼어요. 우리가 2,300표 쯤 먹고, 그 친구들은 500표도 못 얻었

90) 「선인학원 관선이사 파견」, 『한겨레신문』 1992/06/11.  
 91) 「인천대 정상화 힘들 듯 사태관련 교수 복직 요구」, 『한겨레신문』 1992/06/12.  
 92) 「인천대 장총장 사퇴 거부」, 『한겨레신문』 1992/07/26.  
 93) 「인천대총장 직위해제」, 『한겨레신문』 1992/07/29; 「인천대총장 직위해제 관선이사회」, 『동아일보』 1992/07/29.  
 94) 「인천대총장직대 장학식씨」, 『한겨레신문』 1993/02/27.

어요. 잔치 분위기였지요. 이런 분위기에서 1993년도 학자 싸움 준비하면서 인천대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 목표로 가자. 그래서 국·공립대안을 인천대 재단정상화의 핵심으로 잡고 싸움을 전개했던 거지요. 그 외중에 학내에서는 총장선거가 있었지요. 장학식 총장님이 선거 나오실 때 학생들 앞에서도 유세하시고, 교직원들 앞에서도 유세하시고 이런 과정이 ‘대발추(대학발전추진협의회)’로 나타났지요(정재식).” “전국에서 인천대에서 학생, 직원, 교수, 학교당국 해서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권정달).”

1993년 김영삼 정권 출범 직후인 3월 5일, 인천직할시장에 최기선이 임명되면서 시립화 추진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던 인천대생 300여 명은 4월 29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백인엽 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sup>95)</sup> 실제로 관선이사 파견 1년이 다 되도록 ‘백파’에 의한 법정싸움이 계속되고 있었다.<sup>96)</sup> 이 외중에 5월 11일, 인천대를 방문한 최기선 시장은 선인학원 시립화를 선언했다.<sup>97)</sup> “학기 중이었지만 이때는 축제분위기였죠. 학생들이 시장님과 총장님 업고 돌아다녔지요(정재식).” 인천대생들이 이런 분위기를 만끽하기는 처음이었을 것이다.

백인엽은 78억 원 횡령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세 번째 구속 위기에 몰린 6월 9일, “선인학원 14개 학교를 국공립하는 조건으로” 기증서를 최 시장에게 제출했다. 최 시장은 6월 10일, 선인학원 시립화를 다시 공식선언했다.<sup>98)</sup> 노창현 이사장은 6월 8일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재단

95) 「선인학원 비리 항의 시위」, 『한겨레신문』 1993/04/30.

96) 「선인학원 정상화 노력 진통 거듭」, 『한겨레신문』 1993/05/01.

97) 장석우 편(1996, 200-202).

98) 「인천대·전문대 시립화 백인엽 씨, 시에 선인학원 기증 따라」, 『한겨레신문』 1993/06/11;  
「정상화 실마리 찾는 선인학원」, 『경향신문』 1993/06/11; 「선인학원 인천시 기증」, 『경향

내에 실무팀을 구성하고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위한 구체적 작업에 착수했다면서 교육부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시립대학 준비팀이 구성되어 조례제정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sup>99)</sup>

선인학원 국·공립화안은 이규호 문교부장관이 1981년에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었다.<sup>100)</sup> 당시 관선으로 파견된 신기석 이사장과 김민하 학장도 이를 추진하려고 했다. “이후 인천대생 사이에서도 ‘헌납’을 받은 국가가 국립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죠(권정달).” “80년대에도 툭툭 튀어나오는 식으로 국립대안이 학생들 사이에 나왔어요. 학생회도 그랬고. 1987년에 출범한 전대협의 학자추 내용이 다 재단문제였는데 그때 상지대나 조선대 학생들이 도립대나 시립대 개념을 썼어요. 89년도에 다시 재투가 크게 일어났을 때 학생들 요구는 일단 관선이사 파견이었지만 조선대, 세종대, 상지대와 교류하면서 시립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지요(김국래).”

1992년 2월 13일, 「시민의 모임(준)」이 개최하여 700여 명이 모인 ‘선인학원정상화를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김종철 전서울대교수가 국공립대학이 인천교대 하나뿐인 인천은 4년제 국공립대학이 없는 유일한 대도시라고 지적했다. 시민사회가 선인학원 정상화의 목표를 국·공립화로 설정한<sup>101)</sup> 것이다. 제3의 도시인 인천에 국립대가 없다는 점도 큰 명분으로 작용했다. 1992년 5월 9일에도 「선인학원 정상화를 위한 인천시민 건

신문」 1993/06/11; 「선인학원 시·공립화」, 『동아일보』 1993/06/11.

99) 「인천대 인천전문대 시립화 추진」, 『한겨레신문』 1993/06/09.

100) 「선인학원의 향방은」, 『경향신문』 1981/03/24; 「인천대 국립화 검토」, 『경향신문』 1981/03/24. 이 장관은 인천대와 인천전문대는 국립대로, 초·중·고교는 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101) 「선인학원 파행 국공립화로 풀자」, 『한겨레신문』 1992/02/15.

기대회」에서 “선인학원 국·공립화” 구호가 제창되었다.<sup>102)</sup> 5월 25일, ‘범 선추’ 교수와 교사들도 선인학원 국공립화를 요구했다.<sup>103)</sup>

1992년 1학기 인천대생들의 재투가 마무리되고 방학 때 수업이 재개될 무렵인 6월 22일, 송도비치호텔에서 열린 ‘선인학원정상화방안 모색을 위한 강연회 및 인천시민 간담회’에서는 시립화안이 제기되었다.<sup>104)</sup> 결국 1992년이 지나면서 국·공립화 개념은 구체적으로 시립화로 정리되어갔다. “처음부터 시립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국·공립으로 말을 고친 다음 시립화로 간 거였지요. 시민단체와 연계되면서(안경수).” “인천에 국립대가 없다고 해서 처음에는 국립화로 갔었지요(고도현).” “그 다음에 저희는 국공립으로 개념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립화로 간 거지요(정재식).”

그러나 시립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실제로 1992년 6월, 관선 이사 파견을 발표할 당시 교육부 관계자는 12일부터 수업을 받으면 대량 유급사태는 면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국·공립 전환요구는 예산 확보와 인력관리 어려움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했다.<sup>105)</sup> 이는 1981년에 일부 문교부 관료들이 백인엽을 비호했던 논리와 똑같은 것이었다. “이를 기억한 백인엽이 애가 탔는지 학생들에게 재산을 떼 주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인천대만 정리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정성준).”

1993년 들어서도 교육부는 인천대 시립화 결정을 미적대고 있었다.

102) 「선인학원 국·공립화 촉구 시민 등 8백여 명 거리행진」, 『한겨레신문』 1992/05/10.

103) 「선인학원 교수 교사 농성 돌입, 재단이사진 승인취소·고발 등 촉구」, 『한겨레신문』 1992/05/26; 「선인학원 교수 교사 농성 돌입」, 『동아일보』 1992/05/26.

104) 「인천대 시립화 계의 선인학원 시민모임」, 『동아일보』 1992/06/23.

105) 「선인학원 관선이사 파견」, 『한겨레신문』 1992/06/11.

재단을 인천시로 넘기는 설립자 변경승인신청(9.9)을 2개월 이상 유보하고 있었다. 이 와중에 백 측은 시립화에 따른 신분불안과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교직원을 선동하면서 시립화 저지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시립화는 물건너갔다”, “설립자 백씨가 곧 복귀한다”는 괴문서까지 유포될 정도였다.<sup>106)</sup> 이러한 상황에 즈음하여 총학은 교육부의 선인학원 시·공립화 승인을 촉구하는 시위를 계획하고 12월 11일, 교육부에 학생대표 4명을 보내 ‘인천대학교 시립화 승인지연을 바라보는 인천대 6천학우의 입장’을 전달했다. 12월 13일 간부회의에서는 교육부 방문과 대규모 항의시위 계획도 세웠다.<sup>107)</sup> 이 직후 최기선 시장이 12월 29일, “선인학원 시립화 인가가 교육부차관 결재까지 났으며 장관승인도 올해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sup>108)</sup>

#### 4. 맺음말

교육부가 1994년 1월 15일,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승인함으로써 1994년 3월 1일, 인천대와 인천전문대가 시립화되고, 각급 학교들은 공립화되었다. 인천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개교 이듬해인 1980년에 인천대생들의 ‘재단투쟁’이 시작된 이래 국가권력-문교부는 언제나 미봉책으로 일관했고, 재단을 국가에 헌납했다는 교주는 그

106) 「선인학원 시립화 끝없는 진통 승인 늦어져 학사일정 차질」, 『한겨레신문』 1993/11/20.

107) 「시립화 촉구 시위계획」, 『한겨레신문』 1993/12/14.

108) 「선인학원 4개교 시립-공립화인가」, 『동아일보』 1993/12/31.

틈에 되돌아와 학원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 이런 상황이 14년 동안 반복되었다.

이 와중에서 14년의 대장정을 거쳐 선인학원이 시·공립화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가장 일차적 이유는 인천대생들의 재단투쟁이 끈질기게 지속된 가운데 다른 학교와 달리 1980년대 중반 이후에도 운동권 내부의 노선 갈등을 최소화하고 단일대오를 구축했던 강력한 동력에서 찾아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운동권은 교수·교사들과의 제한적 또는 적극적 연대를 구축하고 선인학원 문제를 전국적 문제로 이슈화시키면서 시민의 지지와 힘을 모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각 주체들의 역할 분배도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차곡 차곡 쌓인 내적 역량은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 선인학원 개혁에 동의한 인천시장이 존재하는 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조응할 수 있었다.

19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만 거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작은’ 분야에 대해서도 미시적으로 천착되어야 한다. 그래야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생산적으로 짚어볼 수 있다. 특히 학원민주화는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의 내용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013년 오늘날에도 1천여 원을 횡령한 서남대 재단의 비리가 충격을 주고 있다. 사학재단이 학원을 사유재로만 인식하는 경향은 여전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작은’, 그러나 당사자들에게는 철벽이었던, 학원민주화 과제의 성공적 쟁취 사례로서 선인학원 시·공립화를 이끈 인천대 학생운동 역사는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준다. 무엇보다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투쟁대상이 일관되게 “무조건 재단”이었다고 할 정도로 학교 생활과 환경이라는 자신과 동료학우들의 가장 현실적인 미시적 문제부터 천착하여 사회민주화라는 거시적 대의를 일체화시켜간, 민주화운동의 바람직한 전형을 보여준다.

초기에는 사회민주화 이슈에 소극적 냉소적이었지만, 자신들의 당면문제인 재단투쟁을 지속하면서 인천대생들은 비리재단을 감싸고 있는 더 큰 실체를 인식하고 사회민주화운동과 일체화되어갔다. 그러나 인천대생들은 사회민주화운동 동력이 강해지는 와중에서도 자신들의 현실적 조건인 재단투쟁이라는 ‘상수’를 놓친 적이 없었다. 모든 이기는 싸움이 그렇듯이 인천대 학생운동은 전선을 단순화시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투쟁대상에 초점을 두고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작은 곳에 초점을 두고 ‘제대로’ 집중하면 결국 큰 곳도 보이게 마련이다. 인천대생들의 우직한 정서, 당시 핵심주체들의 우스개 표현을 빌면 “단무지” 논리는 시·공립화로 마무리된 인천대 학생운동의 특징을 한 마디로 정리하는 촌철살인과 같은 표현이다.

끝으로 재투-학자 투쟁이 운동주체들에게 미친 상호 영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천대 학원민주화 흐름이 사회민주화와 결합되어 운동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나타난 한 예로 선인학원 교사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백인엽 치하에 눌러 있던 교사들의 의식이 깨어 전교조로 들어가거든요. 그 중 한 분은 나중에 민주노총 인천본부장까지 맡아요(정수영).” “전교조 지부장도 하시고(권정달)” “그래서 그 분들이 우리 권정달 후배를 스승이라는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환갑이 넘으신 분이 권정달 만나 의식이 깨어 전교조도 들어가고 운동의 길을 열었다는 거지요(정수영).” “인천지역의 사회단체나 지자체에서 이제는 인천대 출신들이 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훌륭한 재원이 많습니다. 옛날 재단투쟁 경험들이 있어 그렇다고 봅니다. 인천대가 역사는 짧지만 재투 경험을 통해 재원들이 되어서 이후 삶에서도 연결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인천대 출신들은 뭔가 하면 우직하게 대하지 잘 변하지 않아요(정성준).”

## 참고문헌

- 장석우(張錫祐) 편. 1996. 『善仁學園 市立化 成功史』. 善仁學園 市立化 成功史 편찬위원회.  
인천대학교 30년사 편찬위원회. 2010. 『인천대학교 30년사』.

### <언론 기사>

-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겨레신문』.

투고: 2013.4.10    심사: 2013.4.12    확정: 2013.5.23